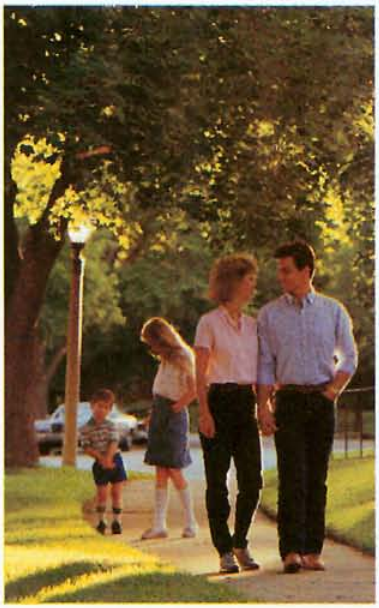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성도의벗 11 1995

별책 부록 : 어린이판

성도의벗 11 1995



표지 설명: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대관장단 메시지, "주님을 섬기고 사탄을 물리침"에서 "사랑하는 남녀간의 적법한 결혼에 대치되는 동성 연애 같은 것들은 인간 사회의 기본 조직인 가족 단위를 해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사진 촬영: 웰던 앤더슨)

어린이란 표지 설명:
타히티 헤이리에 사는 6살의 코 후모에티니 헤이티는 초등협회와 노래부르기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 그는 집에서 부모님을 도와 드리며 나뭇잎들을 긁어 모으는 일을 좋아한다.
14쪽 "뉴스 속의 친구들" 참조

일반

대관장단 메시지: 주님을 섬기고 사탄을 물리침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2
제라드와 애니 지라우드 캐리어: 항상 시작함
바바라 워크맨 14
엄마의 자취를 따라서 다비다 달톤 19
주님은 나의 힘이시다 애나 루고보니 루즈 27
십대 청소년과의 대화 윌리엄 지 다이어 28
지상의 천국: 사진에세이 34
주님을 대신하여 에바 씨 빈 41

청소년란

나의 기적 레베카 로우즈 12
질의 응답: 저는 영을 느끼지 못합니다.
제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20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사라 케스터 24
나를 위해 창조되었네 베싸니 엠 갈브레이쓰 42
고결한 성품 조셉 비 워스린 장로 44

정기특별기사

애독자 편지 1
방문 교육 메시지: "감사함도 더욱" 25

어린이란 (별책 부록)

예수님의 침례 2
어린 친구를 위하여 다이아나 에커셀 잰슨 4
집으로 돌아옴 클라인 디 베러스 5
함께 나누는 시간: 깨끗한 생각 캐럴 에쉬튼 8
심심풀이 10
이야기: 견학 부르스 티 포브즈 11
뉴스 속의 친구들 14
의를 택하라 엘 톰 페리 장로 16

성도의 벗 1995년 11월호

*성도의 벗*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 간-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사모아어, 스웨덴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통가어, 포루투갈어, 프랑스어 및 핀란드어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계 간-러시아어, 불가리아어, 체코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대관장단: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즈 이 파우스트
십이사도 정원회: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딜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밸라드, 조셉 비 워스린,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랜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렉스 디 피네가, 조 제이 크리스텐슨
고문: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스펜서 제이 콘디, 존 에이 치 그로버그
교과 과정부 관리자들:
관리 책임자:로날드 엘 니이트
기획 및 편집 책임자:브라이언 케이 헬리
그래픽 책임자:앨런 알 로이보그
잡지 그래픽 부장:엠 엠 가와사끼
성도의 벗:
관리 편집인: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알 발 존슨
부편집인:데이비드 미첼
편집인 보조/어린이란:디앤 워커
스케줄 관리:매리앤 마탄데일
미술 책임자:스코트 디 밴 캠펜
디자이너:새리 쿡
생산 관리:레이날드 제이 크리스텐슨, 제인 앤 피터스, 데니즈 커비, 마튜 맥스웰
구독 담당 스탭:
발행 부수 책임자:토마스 엘 피터슨
배부 부장:조이스 핸슨
마케팅 부장:조이스 핸슨,렌트 에이치 소렌슨

통 권:제356호, 제32권, 제11호
등 록: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1995년 11월 1일(월간지)
발행인:서 원
편집인:한상의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삼립인쇄주식회사 김현수
©1995년 재단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영어 승인-10/93 번역 승인-10/93
NOVEMBER 1995 International Magazine의 번역본. Korean. 95991 320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일반호는 권당 500원이며, 특집호는 1,000원입니다. 성도의 벗 해외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 1지역(일본 등) 12,000원, 2지역(필리핀, 중국 등)16,200원, 3지역(중동 등)23,200원, 4지역(중남미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 센터(☎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ONGDO-UI POT*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84150.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 O. Box 26368, Salt Lake City, Utah 84126-0368, US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 O. Box 26368, Salt Lake City, Utah 84126-0368, USA.

우수한 자원

저는 약 12년 전 교회에 들어온 이래, 계속 아 *리아호나*(포르투갈어 판)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 잡지가 교회 지도자들과 일반 회원간의 통신 매체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저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를 매개로 하여 독자들에게 축복을 내리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이 겪은 경험담을 읽을 때 저는 특히 영의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와드 장로 정원회 회장으로서 가정 방문 교육 시, 대관장단 메시지를 축복의 도구로 이용할 것을 형제들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엘슨 칼로스 페레이라
시리티바 제4와드
브라질 시리티바 이과수 스테이크

가족 역사 동반자

저에게는 *리아호나*(스페인어 판) 잡지에 대해 매우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잡지를 매 호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저의 간증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부에서 가족 역사 전문가의 직책을 맡고 있는 저는 리아호나에 실린 성스런 가족 역사 관련 기사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총관리 역원들이 인용하시는 가족 역사 관련 성구와 영감 어린 말씀 및 기사들을 즐겨 읽습니다.

프란시스코 호세 카졸라 그라나도스
말라가 제1지부
스페인 말라가 선교부

줄리아 마빔벨라

저는 1995년 3월호에 실린 "줄리아 마빔벨라"에 관한 기사를 읽고 깊은 감동과 영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자매님은 참으로 고결하고 용감하고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그 자매님이 접촉한 사람들에게 보여 준 모범은 모든 독자들의 마음속에 심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모범으로 사람들이 환경에 관계 없이 자기의 생활과 다른 사람의 생활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줄리아 마빔벨라 자매님 같은 분이 있기에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저도 변화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날레이 비 소리아노
산 칼로스 제1와드
필리핀 링가이엔 스테이크

잡지명 변경

저는 1986년, 65세 때 침례를 받은 사람으로, 항상 *탐불리*(영문 판)를 구독해 왔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식을 쌓는 데 이 잡지가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외국으로 여행할 수는 없지만, 이 잡지를 통하여 저는 세계 도처의 성도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생활에 관한 기사를 읽을 때마다 저는 고무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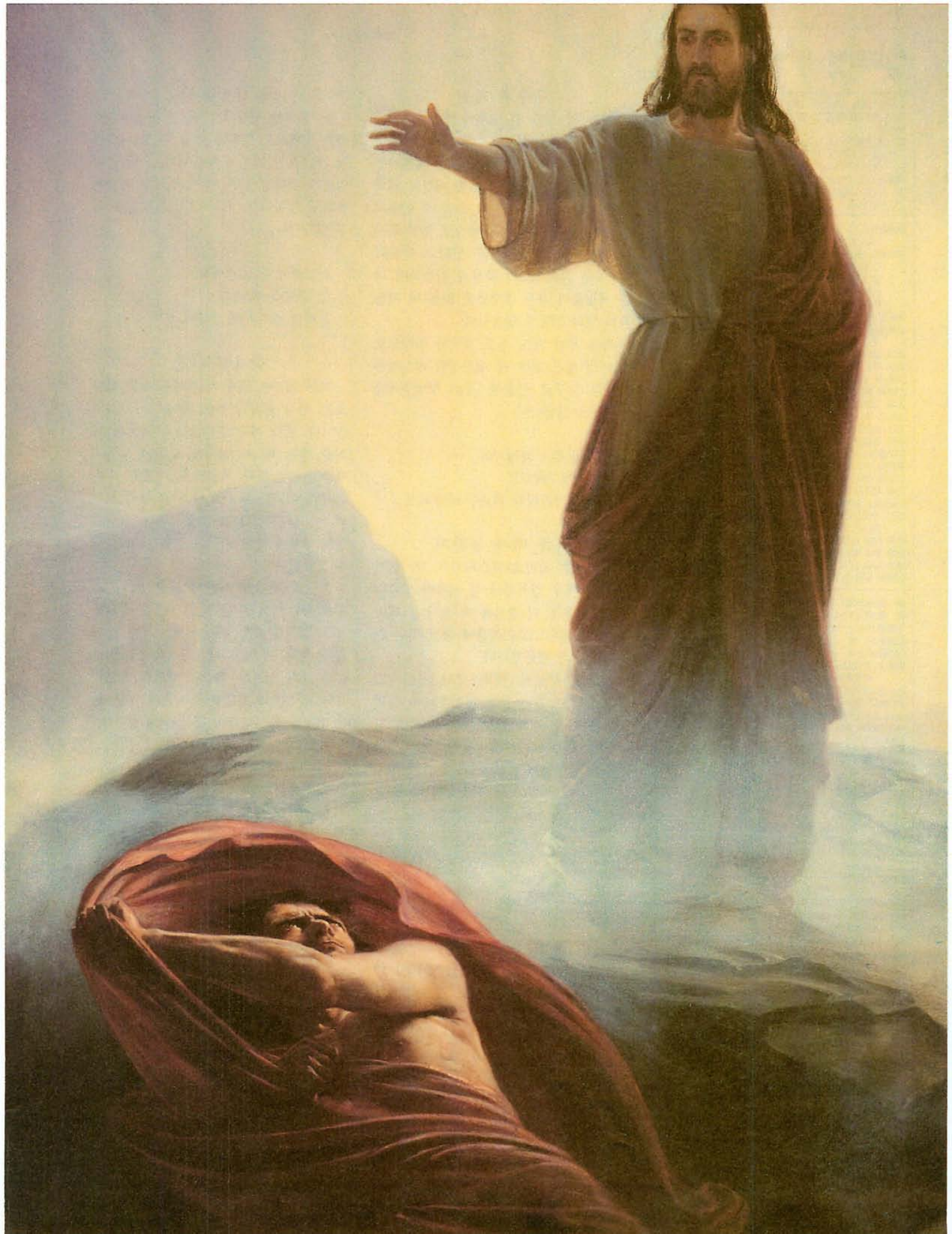
그런데 잡지의 이름이 *탐불리*에서 *리아호나*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잡지를 보고 알았습니다. *리아호나*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이름입니다. 리아호나가 리하이와 그의 일행을 약속된 땅으로 인도했듯이, *리아호나* 잡지는 독자들이 보다 높은 영성을 지니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알바로 알 타디아
캇바로간 제1와드
필리핀 타크로반 선교부

편집 노트

애독자 여러분께 진실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편지와 기사 및 이야기 등을 기다립니다. 성명과 주소, 와드/지부 및 스테이크/지방부를 꼭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서울 성동 우체국 사서함 22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관리 본부 *성도의 벗* 담당자. *관리 본부에서는 보내 주신 기사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INTERNATIONAL MAGAZINE으로 보냅니다.

International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SA



주님을 섬기고 사탄을 물리침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사탄의 영향력에 대해 자주 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그다지 인기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저는 한번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탄에 대해 많은 얘기를 들었다. 그에 관해 많이 읽어 보기도 했다. 심지어는 사탄과 함께 일을 한 적도 있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이 사회적 혹은 정치적 정확성의 표준에 어긋나게 평가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인간 행동의 거짓된 교리에 도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탄의 영향력이 점점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배럿 브라우닝은 "사탄은 추앙을 받을 때 오히려 가장 사탄다워진다."[1]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사탄은 늑대의 온순함을 믿을 만큼 어리석기"[2]도 합니다.

사탄과 그의 신비스러움에 넘어가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사탄을 가까이함으로써 얻어지는 일은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불 장난을 하는 것과도 같이, 화상을 입기가 너무 쉽습니다. "죄에 관한 지식은 죄를 짓도록 부추깁니다."[3] 가장 안전한 길은 사탄이나, 어떤 형태든 그의 사악한 행동과 관행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탄 숭배, 요술, 저주, 주술, 마술, 그릇된 목적의 유해한 마법, 기타 모든 형태의 악마 추앙에서 오는 죄악은 전염병처럼 멀리 피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위한 준비로 금식과 기도를 함으로써 사탄의 유혹을 당당하게 물리치신 구세주의 모범에 대해 권고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사탄과 그 영향력에 대해… 연구하는 것"[4]이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사탄이 세상 모든 악의 근원인 이상, 그가 하나님의 사업에 반대되는 일을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앨마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선한 것은 무엇이든 모두 하나님으로부터요, 악한 것은 모두 악마에게서라."[5]

제가 이 주제를 택한 주된 이유는 회원들에게 바울의 다음과 같은 말씀처럼 경고를 해 줌으로써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궤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6] (고린도후서 2:11) 저희는 세상의 궤변과 친숙하지 않을지도 모를 회원들이 사탄의 부추김과 그 거짓된 길에서 벗어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은 매리온 지 롬니 장로님이 1955년 브리감 영 대학교 영적 모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사탄을 실족시키지 않은 채 주님을 섬기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용어상 좀 어색한 데가 있습니다. 롬니 장로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름으로써 얻는 화평과 다툼이나 전쟁 사이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7]

누군가는 "갈림길에 이르게 되면 그대로 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해선 효과가 없습니다. 구세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8] 오늘날 우리들 중 상당수는 사탄을 실족시킴이 없이 두 주인을—주님과 우리 자신의 이익—섬기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향력은 우리가 그분을 따르도록 권고하고 독려해 줍니다. 반면에 사탄의 영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불신하고 가벼이 보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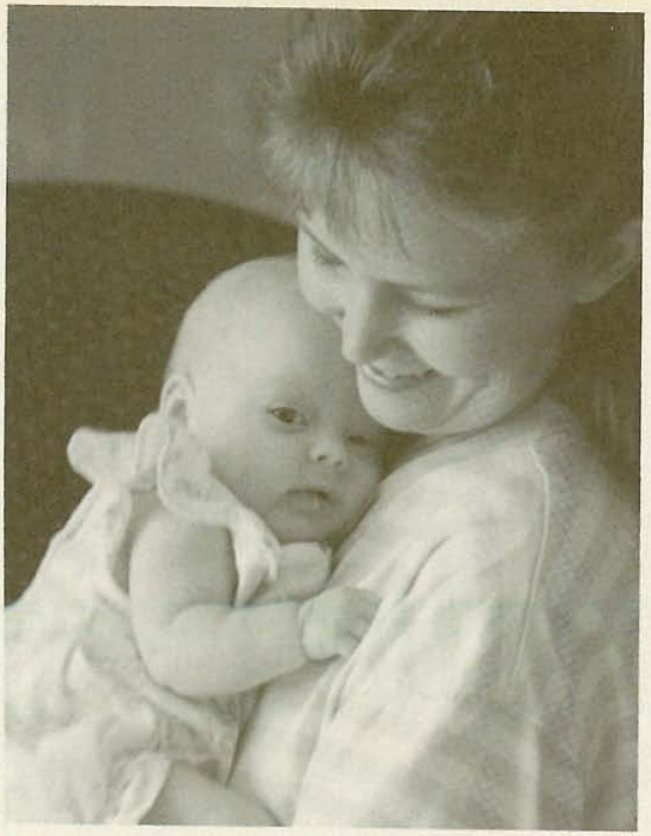
롬니 장로님은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필멸의 인간이] 선택한 것의 결과는 흑백 논리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로서는 이러한 반대 세력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이것 혹은 저것에 의해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그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힘과 권리를 부여해 줍니다. 그러나 선택은 그가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간은 둘 다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9]

1987년 연차 대회에서 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좀더 강해짐에 따라 사탄의 권세가 늘어나는 증거를 보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탄이 더욱 힘을 뻗친다는 것은 이 사업이 참되다는 일종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반대는 더욱 교묘하게 그리고 공공연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악을 인식하기 위해 더 큰 영성이 필요하며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 더 큰 힘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10]

낙태

낙태는 미국뿐만 아니라 사실상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된 악습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낙태를 찬성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정부가 낙태를 하기 위한 여성의 권리에 제동을 걸려고 하면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1994년 2월 3일 워싱턴 시에서 가진 한 조찬 기도 모임에서 테레사 수녀님은 제가 이제껏 낙태에 대해 들어 본 것 가운데 가장 솔직하고 강력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84세 되신 유고슬로비아 출신의 수녀로서 오랫동안 인도의 극빈자들을 돌보아 왔습니다. 지금은 워낙 나이가 들었고 육체적으로도 힘이 없지만, 용기 있고 영적으로 아주 강건한 분입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오늘날 미국을 좀먹고 있는 사회악의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관대했었으나, 이제는 이기적으로 되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한 이기심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낙태라고 했습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테레사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랑과 관심이 넘치는 환경으로 나아오는 대신에 낙태라는 악습에 의해 현세를 경험할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

수녀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면서 낙태를 증가하는 폭력이나 거리의 살인 사건과 연결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서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낙태를 받아들이는 나라들은 모두가 그 국민들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폭력이든 사용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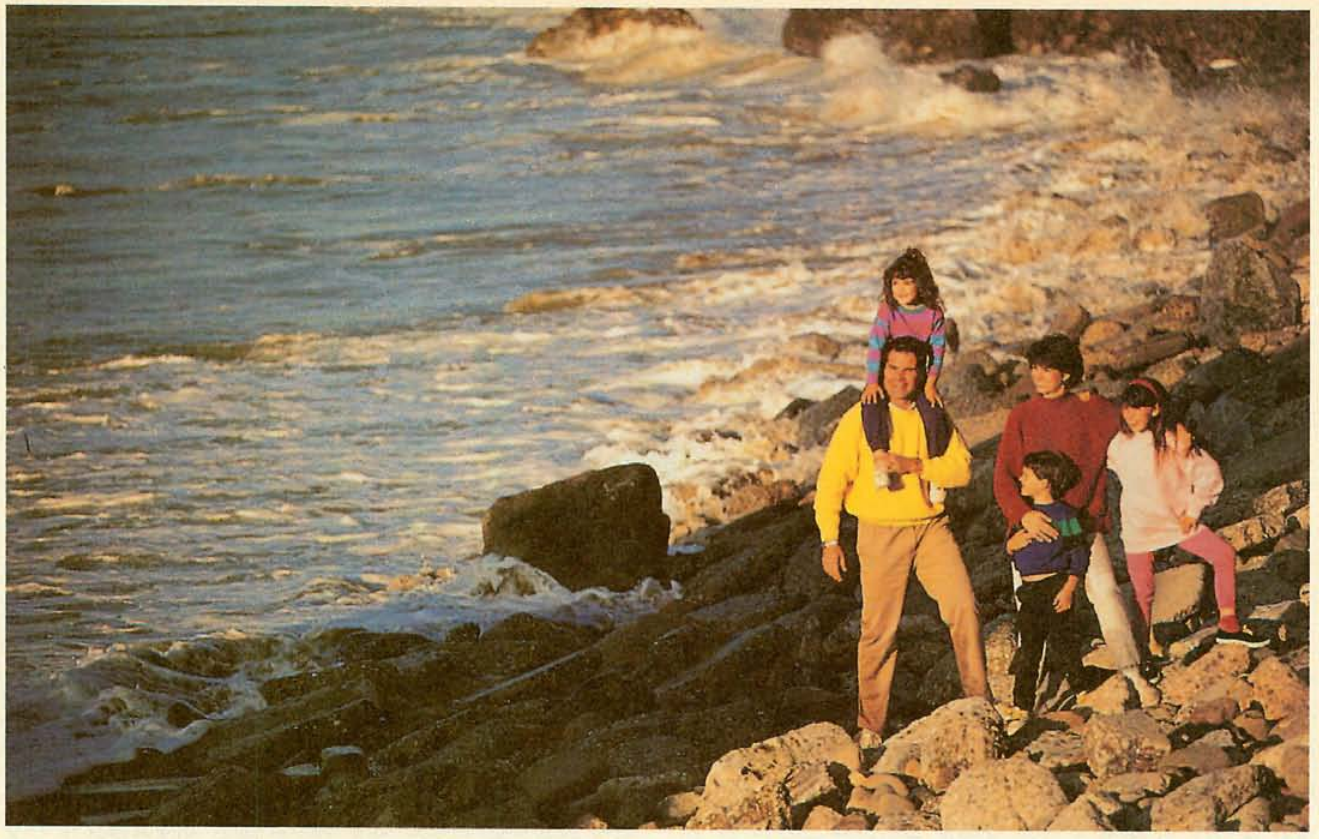
그런 다음 그분은 인도와 전 세계 고아들에게 주어진 관심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쏟아 주시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관심을 주는 바로 그 분들이 어머니의 고의적인 결정으로 죽어 가는 수많은 생명들에 대해선 그리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낙태라고 하는 이것은 오늘날 세계 평화를 해치는 가장 큰 도구로써 사람들을 진리로부터 눈멀게 하고 있습니다."[12] 이 설득력 있는 메시지에 대해 칼 토마스라는 논평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낙태가 번성하고 있는데도 왜 국가나 사람들은 인간의 삶을 고귀하고 존엄하다고 하는 걸까요? 보스니아에서의 무차별적인 학살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어린 생명체들이 살해되어 텔레비전 카메라에서조차 그 모습이 보이질 않는데도 왜 보스니아 사태에 대해 그처럼 괴로워하는 걸까요?"[13]

결론적으로 테레사 수녀님은 임신을 하기는 했지만 자녀를 낳고 싶어하지 않는 여성들에게 그 아기들은 그녀에게 달라고 간청하며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낙태가 될지도 모를 아이면 누구나 기꺼이 받아들여서 그 아이를 사랑하고 또 그 아이로부터 사랑을 받을 부부에게 드릴 것입니다."[14] 이 노수녀님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적 용기가 무엇인가를 몸소 보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탄을 물리쳤어야 했는지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언론이나 논설가들은 대부분 그분의 그 훌륭한 말씀을 귀담아 듣질 않았습니다. 아마 정치적 사회적으로 바로잡아지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꼈나 봅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가 다 그런다든가, 그것은 합법적이다라고 하는 말로 자기 입장을 정당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경전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은 그처럼 쉽게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 성장"

다음으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15]는 창세기의 말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상에 인구가 너무 많다는 주장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1994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인구 및 발전에 관한 유엔 국제 회의에서는 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회의에서는 여러 가지 값진 결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론의 중심을 차지한 것은 이미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지속적 성장"이란 문구였습니다. 이 단어는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구 속에는 영리하기 그지없는 사탄의 사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선진 국가들 가운데 이 "지속적 성장"이란 신조어에 대해 소리 높여 반대를 외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포브지에 실린 한 논설은 사람은 자산이지 부채가 아니라고 의미 있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논설은 인구 성장 억제가 경제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말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아주 직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자신에 찬 소리로 "자유로운 사람들은 자원을 '낭비'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들을 창조한다."[16]는 말을 했습니다.

*유 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에 나온 "100억 명 분 저녁 식사 좀 부탁합니다."라는 기사는 서기 2050년이면 세계 인구가 100억 명이 될텐데 지구는 최소한 이 수의 8배인 8백억 명이 먹을 식량을 생산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연구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지구가 최고 1조 명까지 먹여 살릴 수가 있다고 추정합니다.[17] 지속적 성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앞을 보는 힘과 신앙이 부족한 것입니다. 주님은 "땅은 충만하고 충분하여 남는 것이 있나니"[18]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문제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동성 연애

교회는 물리쳐야 할 사탄의 또 다른 영역 중의 하나가 동성 연애라고 봅니다. 저는 동성간의 결혼에 대한 대관장단과 십이사도의 말씀이 계속해서 당사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오직 우리의 불행에만 관심이 있으며, 사람들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되는 행

사탄은 인간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한다. 사랑하는 남녀간의 적법한 결혼에 대치되는 것들은 무엇이든 사회의 기본 조직인 가족 단위를 해체시키는 역할을 한다.

동을 하게 함으로써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편 중의 하나가 거룩한 창조 능력을 온당하지 않게 사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된 결혼이란 법적으로 합당하다고 인정 받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을 의미합니다. 결혼으로 맺어진 남편과 아내간의 성적 관계만이 주님 앞에 용납될 수 있습니다.

동성 연애는 물려받는 것이라는 이론이 좀 인정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이것이 맞다고 하는 과학적 증거는 찾아 볼래야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만일 이것이 옳은 얘기라면 인간의 행복에 관한 전체 계획이 모두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남자와 여자로 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라는 일부 이론과는 달리, 여러 권위 있는 기관들은 이것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나면서 부터 동성애 성향을 지닌다고 믿는 잘못된 생각은 회개하려는 사람들에게 개심할 기회를 주질 않으며, 결국에는

좌절과 낙담과 실의에 빠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남녀간의 적법한 결혼에 대치되는 동성 연애 같은 것들은 인간 사회의 기본 조직인 가족 단위를 해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기본 조직이란 가족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대체적 가족 형태를 옳다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창세기의 말씀대로 합법적 결혼 안에서 남자와 여자에게 생명체를 낳을 수 있게 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인 모두가 이 대체적 가족 형태를 갖는다면 그것은 곧 인간 가족의 종말을 뜻하게 됩니다.

결손 가정

사탄은 가정이 하나씩 해체될 때마다 기뻐하며, 심지어는 비난 받아야 할 부모조차 없는 상황인데도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들이 관련돼 있는 경우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녀를 육체적, 영적으로 경시하게 될 때 그것은 곧 이 세상의 여러 사회악을 낳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작은" 죄

지금부터는 사탄을 기쁘게 하는 적당한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니파이는 사탄이 이용하는 책략이나 원리에 대해 이렇게 알려 주었습니다. "많은 자들을 달래어 육욕의 안식처를 좇게 하며 이르기를, 시온에서 모든 것이 잘 되리라. 참으로 시온은 번성하며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하리니 이같이 악마가 저들의 영혼을 속여 조심스럽게 저들을 지옥으로 인도해 가느니라. 또한 다른 자들을 달콤한 말로 꾀어 저들에게 지옥이 없다 하며 이르기를, 악마란 없는 것이매, 나는 악마가 아니로다 하며, 저들의 귀에 속삭여 말하기를 저들을 움켜잡아 무서운 쇠사슬로 얽어 맬 때까지 하며, 그때로부터 저들은 빠져 나오지 못하게 되리니"[19]

시 에스 루이스는 우리에게 사탄의 책략에 대해 예리한 통찰력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꾸며낸 편지에서 마왕 스크루테이프는 자신의 부하 마귀 웜우드에게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당시 웜우드는 좀더 숙련된 마귀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너는 이것들이 너무 작은 죄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의심할 필요도 없이 다른 모든 어린 마귀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특별한 악행에 대해 보고할 수 있게 되길 진정 바랄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작은 규모의 죄인가는 문제가 되질 않는다. 다만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사람을 빛으로부터 몰아내 아무것도 없는 끝으로까지 몰고 가기만 한다면 말이다… 사실상 지옥으로 이르는 가장 안전한 길은 이정표라든가 도로 안내판도 없이 갑자기 꺾어져 가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경사면을 따라 가면서 천천히 굴종시키는 것이다."[20]

사회의 "법과 규범"은 소위 말하는 사탄의 작은 죄, 즉 도박이나 알콜 남용 또는 마약 소비와 같은 것들을 퇴치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같이 보이길 원하는 이들 중에는 종교적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듯이 가장을 한 채, "전 음주나 도박을 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그걸 원하는 사람들을 법으로 통제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적인 측면과 사회악으로 인한 사회적인 손실 비용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들은 법이 인간 행동을 통제해선 안 된다고 어리석은 주장을 합니다. 제 오랜 법조계의 경험으로 볼 때, 모든 형법에는 그 나름의 도덕적 기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탄을 기쁘게 함

다음으로는 사탄을 성나게 함이 없이 좀더 적당하게 주님을 심기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전 추천서를 갖고 있으면서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가까이에 살고 있고 성전 추천서는 있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탄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추천서를 갖고 성전에 가서 영적인 보호를 얻으려 할 때 분을 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성전에 갈 계획을 세웁니까? 그러다가 성전에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저런 장애가 생기지는

사진 촬영: 롱긴 론크지나 이세

사탄은 우리가 성전 추천서를 사용하여 성전에 가서 영적인 보호를 취하려 할 때 실족한다. 우리가 성전을 경배할 때면 사탄은 늘 실족했다.

않습니까? 사탄은 늘 우리가 성전을 경배할 때 분을 냈습니다. 한번은 브리감 영 대관장님이 성전을 짓는 일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을 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전 성전을 짓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성전을 지을 때면 늘 지옥의 종이 울리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자 영 대관장님은 "전 그게 다시 울리는 걸 듣고 싶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성전의 벽들을 들어낸다면 지옥의 모든 무리들이 활동을 할 것입니다." 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21]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님은 우리들이 "주님의 성전을 [우리] 회원의 위대한 상징으로 바라보아야"[22]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만일 이 교회가 전세계에서 행하는 인도주의적인 사업에만 국한해서 우리의 신앙을 선포한다면 사탄이 어느 정도나 분을 낼지가 궁금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은 아주 훌륭한 것임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인도주의 활동과 같은 사회 정의에 대한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사탄이 힘들어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몰몬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라고 전하고,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해 충만한 복음과 권능이 아주 분명하게 회복되었다고 선포할 때, 우리가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이며 그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보았다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담대히 간증하면, 사탄은 매우 분노할 것이 분명합니다.

구세주의 완전한 삶과 온 인류를 위해 보여 주신 위대한 속죄에 관한 말을 함으로써 우리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사 덕분에,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사탄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모든 길은 하늘로 통하며, 따라서 우리가 어느 길을 택하든 문제가 되질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면전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사람이 어느 교회에 속하나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사탄을 기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똑같은 곳을 위해 일하기 때문입니다.

델버트 엘 스테플리 장로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만든 철학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경전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면전으로 이르는 길이 그다지 쉬운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길은 곧고 좁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허황된 의견이 표현될 때 사탄이 아주 기뻐하며 웃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교리나 의식 혹은 누가 그 의식을 집행하나에 관계없이, 어느 종교든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하는 사탄의 교활함에 속아, 인간의 마음이 계시된 진리에 눈멀어 왔기 때문에 사탄은 기뻐하는 것입니다."[23]라고 그분은 말씀했습니다.

사탄을 물리침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그는 우리에게 권세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겁쟁이이므로 우리가 굳건하게 서면 움츠러들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찌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24] 또한 니파이는 사탄이 의로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함이라."[25]고 말했습니다.

사진 촬영:웰든 앤더슨

우리는 코메디언이나 그 밖의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말로써 자신의 장난을 정당화하거나 설명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사탄이 저더러 그러라고 시켰어요." 저는 사탄에게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킬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혹을 하거나 속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데도 우리 위에서 권세를 부릴 수는 없습니다.

사탄을 물리치는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강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모든 육신을 갖고 있는 실체는 육신을 갖지 못한 것들을 다스릴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악마를 허락하지 않는 한, 악마는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없습니다."[26] 또한 이러한 말씀도 했습니다. "사악한 영들에게도 그들을 다스리는 한계와 제한과 법이 있습니다."[27] 그러므로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전능하지 못하다고 하겠습니다.

성신의 은사

사탄은 이 속기 쉬운 세대에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 결과, 문자 그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희생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시퍼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권세를 막아 주는 든든한 방패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는 성신의 권세를 통한 분별의 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은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 계신 예언자들의 권고를 따르려고 애쓰는 분들에게 개인적인 계시로 틀림없이 주어집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게으를 때 자신의 제자들을 뽑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일하느라 분주할 때 제자들을 선택하셨다고 한다. 자녀들에게 의롭게 일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사탄을 물리치게 하는 좋은 방편이 된다.

이와 같은 개인적 계시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바라보는 분들에게 분명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온 몸은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 그 속에 어둠이 없"[28]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노력은 성약과 복음의 의식들에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모든 분들로 인해 방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겸손히 따르는 사람들은 사탄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은 도와주거나 영을 고양시켜 주거나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는 그가 사로잡은 사람들을 수치와 비참함 가운데 내버려 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지지해 주며 영을 고양시켜 주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금식과 기도

저는 금식과 기도야말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 도덕적인 강건함과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한 훌륭한 방편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하기 어려우며 그다지 편한 것만은 아니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세주의 모범에 대해 권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분은 광야로 가서 자신의 성역을 위한 영적 준비를 하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구세주를 향한 사탄의 유혹은 대단했지만, 자신의 영을 정결케 함으로써 그분은 모든 악을 이기실 수 있었습니다.

사탄을 막기 위해서는 또한 일을 해야 합니다. 벌통은 유타 주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근면함과 근로의 정신을 발전시키셨습니다. 십이사도 평의회 보조이신 존 롱든 장로는 헌든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게으를 때 자신의 제자들을 고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그물을 깁거나 이를 바다에 던지느라고 분주할 때 그분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29]

저는 이 지상에 존재하며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거짓, 무질서, 폭력, 혼돈, 파괴, 비참함 그리고 속임수로부터 우리를 구해 줄 힘이 있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그와 같은 구원의 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의 원리이고 성약이며 의식입니다. 그와 똑같은 원리와 성약과 의식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권의 권세와 권능과 서로 짝을 이룹니다. 이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은 이 지상에 있는 사탄의 권세를 거의 다 물리칠 수 있는 이러한 권능의 소유자이자 관리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미 돌아가신 모든 분들과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들을 위해 이런 권능을 위임받았다고 믿습니다.

사탄을 성나게 할까 걱정함이 없이 우리의 생을 주님을 섬기는 일에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의로움이 확산됨으로써 사탄의 파괴의 손길이 정지되고 그가 온 세계를 저주할 수 없게 되길 간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살펴 주시며 우리의 잘못에 대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고통 받는 자들에게 위안을, 슬퍼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는 평강을 가져다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태복음 6:24).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두 주인을 섬기려 하고 있다.

2.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쭐해 하거나 착각에 빠져 있다. 그들은 사탄을 실족시키거나 그의 원리와 관행을 피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시퍼의 계략과 권세로부터 우리를 막아 줄 든든한 방패가 많이 있다. 그러한 보호는 성신의 은사를 통한 분별의 영 가운데 있다.

4. 성신의 은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 계신 예언자들의 권고를 따르려는 자들에게 틀림없이 주어진다.

5. 사탄은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우리 위에 임할 권세가 없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했다.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찌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야고보서4:7). 그는 의인의 마음을 이길 권세가 없다.

6. 금식과 기도는 의롭게 생활하며 행동하기 위해서 도덕적,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참고 문헌:

1. *오로라 리*, 7권, 105행
2. *리어 왕*, 제3막, 6장, 18행
3. 조셉 에프 스미스, *복음 교리*에서 인용,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39년), 373쪽
4. *브리감 영 설교집*, 존 에이 윗소 편(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78년), 257쪽
5. 앨마서 5:40
6. 고린도후서 2:11
7. "평화의 대가", *올해의 말씀*(프로보, 유타:브리감 영 대학교), 1955년 3월 1일
8. 마태복음 6:24
9. 대회 보고, 1962년 10월, 94쪽
10. *성도의 벗*, 1988년 1월호, 37쪽
11. 칼 토마스, "테레사 수녀는 낙태에 반대함", *솔트레이크 트리뷴*, 1994년 2월 15일, A면, 11쪽
12. 같은 책
13. 같은 책
14. 같은 책
15. 창세기 1:28
16. 말콤 에스 포브스 이세, "보건 개혁의 참 면목," *포브스지*, 1994년 9월 12일, 25쪽
17. 스티븐 버디안스키, "100억 명 분 저녁 식사 좀 부탁합니다," *유에스 뉴스 앤 드 월드 리포트*, 1994년 9월 12일, 57~62쪽
18. 교리와 성약 104:17
19. 니파이이서 28:21~22
20.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뉴욕:맥밀란사, 1961년), 64~65쪽
21. *브리감 영의 설교 말씀*, 410쪽
22. *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8쪽
23. 대회 보고, 1958년 4월, 115쪽
24. 야고보서 4:7
25. 니파이일서 22:26
26.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81쪽
27. *교회사*, 4:576
28. 교리와 성약 88:67
29. 대회 보고, 1966년 4월, 39쪽에서 인용

그동안 나는 축복사의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 왔다. 그래서 열일곱 살이 되었을 때, 나는 축복사의 축복을 받을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나는 축복사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약간 두려웠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에 대해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축복 받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에 대해 걱정이 되었다.

마침내 나는 어떤 신앙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하여 나는 여러 차례 기도를 했고 감독님과 접견도 했다. 또 스테이크 축복사님과 축복 받을 약속도 받아 놓았다. 그런 다음 기다리는 동안 이 중요한 축복 의식을 위해 영적으로 준비되려고 노력했다.

축복사의 축복을 받기로 정해져 있는 날, 나는 온종일 금식했다. 오전에는 영적이고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내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사탄이 작용했음인지 그 날 일이 그릇되게 나갔다. 학교에서 불쾌한 일들이 일어났고, 집으로 돌아올 때쯤에는 마음이 몹시 혼란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집 안을 왔다 갔다 하며 나는 안절부절못했다.

그 때 나는 내가 존경하는 어떤 남녀 두 분이 난로가에서 축복사의 축복을 받을 준비를 했던 것에 관해 이야기해 주셨던 말씀을 떠올렸다. 그분들이 그 때 권고한 말씀은 우리가 축복 받을 때 알고 싶은 것을 듣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듣고 싶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당신께서는 아실테니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간구했다. 그리고 나의 두려운 마음을 없게 해 주시고 괴로운 마음을 평안케 해 달라고 간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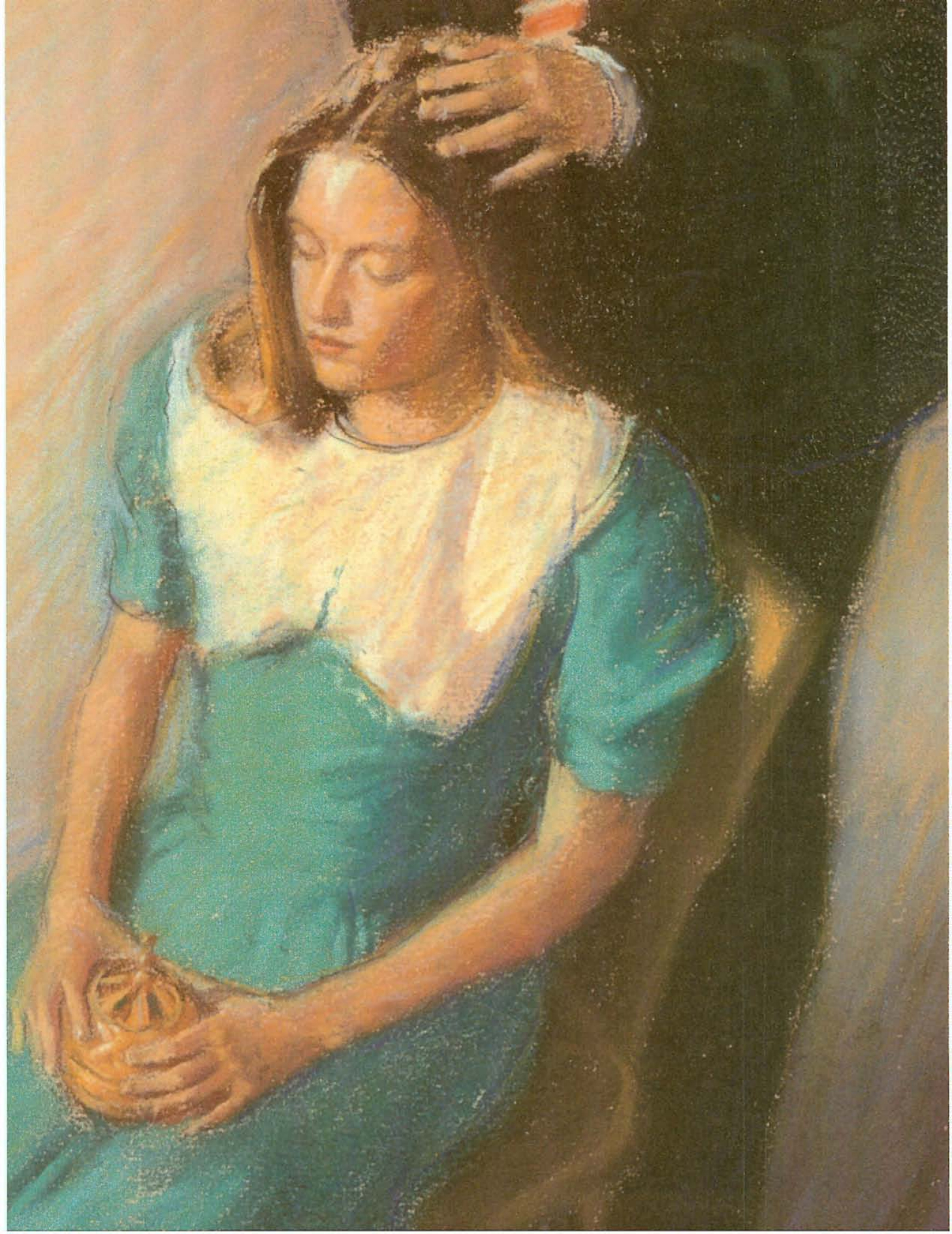
그 후 모든 일이 좋아졌다. 사실 그것은 내 개인적인 기적이었다. 축복사님은 나를 나 자신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듯했다. 나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분이 축복 말씀을 할 때,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실제로 알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나의 이름도 알고 계셨다.

축복사님의 축복이 끝난 후 내 주변에는 전과 다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과거에는 이처럼 깊은 영적인 느낌을 가져 본 적이 없었다.

나는 이제 교회 지도자님들이 축복사의 축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를 알고 있다. 우리가 어떤 것의 가치를 배우고 그것을 얻기 위해 대가를 치르면 우리는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된다. 나에게는 축복사의 축복과 축복 받는 경험이 내 생애에 가장 좋은 경험 중의 하나가 되었다. 내가 받은 축복사의 축복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약속이 성취되도록 나를 계속 인도해 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

레베카 로우즈
그림:앨런 가네스

나의 기적



제라드와 애니 지라우드 캐리어

항상 시작함

바바라 워크맨

선교사들은 길 건너편의 젊은 부부가 자신들과 만나 시간을 할애해 주리라 생각하지 않았다. 제라드와 애니 지라우드 캐리어 부부는 서둘러서 극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선교사들이 그 부부를 보았을 때, 그들은 그 부부에게 말을 건네기로 결정했다. 제라드와 애니는 잠시 멈추어 선교사들과 대화를 나눈 후, 그 주 중에 그들의 방문에 동의했다.

제라드와 애니는 프랑스 툴루즈에서 10 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선교사들과 첫번째 토론을 마친 후 3주간의 휴가를 떠나게 되었다. 제라드와 애니가 휴가에서 돌아오기 전에 선교사들은 이동을 하였고, 그 부부는 그 이후로 선교사들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약 이 개월 내지 삼 개월이 지난 후, 1968년 10월말 즈음, 새로 온 선교사들이 구도자 기록란에서 제라드와 애니 부부의 이름을 찾게 되어 복음 토론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클라우드 투르 형제는 그 당시 툴루즈 지방부장이었다. 그와 그의 부인은 제라드와 애니의 친구가 되었고, 파티에 그들을 초대하거나 선교사들과의 토론마다 함께 참석했다. 클라우드 투르 형제와 그의 부인은 제라드와 애니가 그들에게 교회 회원으로 주어질 의무들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 그 결과, 지라우드 캐리어 부부는 주님과 그의 사업을 받아들였고 토론을 시작한 지 4주 후 침례를 받았다.

제라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변화를 가져오게 한 것은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대해 아주 좋은 느낌이 있었고, 저와 저의 부인은 그의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의 회원들

아래: 1995년, 애니와 제라드 *좌측:* 1971년 제라드가 베르사유 지부장으로 봉사하던 시절의 그의 가족

은 지라우드 캐리어 부부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지부에서는 드라마와 역할극 같은 특별한 모임을 준비 중이었는데, 지라우드 캐리어 부부는 거의 매일 밤 연습을 위해 교회로 갔다. "그것은 회원 유대를 시작하는 훌륭한 방법이었습니다."

제라드는 곧 지부 서기로 부름받았다. 그리고 지방부 서기로 봉사했으며, 후에는 지방부장단의 보좌로 봉사했다. 애니는 주일학교에서 기초 복음반 교사로 부름받았다. 제라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것은 그녀에게 있어서 첫번째로 주님의 영을 지속적으로 느꼈던 기회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의 신앙개조 한 권만이 있었을 뿐, 교사가 되는 것에 관한 그 어떤 도움이나 지침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영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수년이 지난 지금, 성신이 그녀의 삶에 얼마나 크게 작용했는가를 느낄 수 있다.

제라드와 애니는 대학 재학 중, 토목 공학을 전공할 때 서로 만났다. 둘이 결혼을 하고 첫번째 아이를 가졌을 때까지 그들은 여전히 학생이었다. 졸업 후, 제라드는 군 복무를 수행해야 했기에, 애니가 가족을 부양해야 했다.

제라드는 이렇게 말한다. "애니가 일하는 동안 우리의 자녀들은 보모에게 맡겨졌는데, 조건들이 아무리 좋다해도 엄마가 하는 것만큼은 안 되었습니다. 저는 군 복무 후, 단지 일 개월간 집에 있었고, 애니는 예언자의 조언을 구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결정했으며,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결정을 말했을 때, 우리는 아이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었는지 언제나 기억할 것입니다. 어린 아들은 엄마가 집으로 돌아올 날 만큼의 돌을 모아 두었다가, 엄마가 집으로 돌아오면 매일 작은 돌을 하나씩 던졌습니다."

"애니는 자신의 결정을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곱 자녀의 훌륭한 어머니였고, 저에겐 좋은 후원자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우리 자녀들의 학교 자모회를 포함한 지역 사회에서도 봉사하였습니다."

애니와 제라드는 항상 그들의 자녀들이 감명 받을 수 있는 복음에 대해 가르치려고 노력하였다. 침례를 받은 지 일 년 후, 그들의 자녀가 각각 두 살, 세 살이었을 때, 애니와 제라드는 성전에서의 가족 인봉을 준비하였다. 어느 날 가정의 밤에서 그들은 성전에

서의 가족 인봉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네 개의 성냥 개비를 가지고, 성냥 개비 하나 하나는 각각의 가족 구성원을 나타낸다고 말 하고서, 애니와 제라드는 성냥 개비를 책상 위로 떨어뜨렸다. 성냥 개비들은 모두 흩어졌고 그들은 사후의 가족 관계가 그렇게 흐트러지리라고 설명했다. 다음에는 성냥 개비들을 실로 묶은 후, 다시 책상 위로 떨어뜨렸다. 이번에는 성냥 개비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함께 묶여 있었다. 애니와 제라드는 아이들에게 성전에서의 가족 인봉은 그들이 함께 계명에 충실하고 함께 봉사한다면, 현세에서도 죽은 후에도 죽음이 그들을 결코 갈라 놓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세 살짜리 크리스토프는 이 교훈에 커다란 감명을 받았고, 가족이 함께 성전에 갈 날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 날이 왔을 때, 어린 두 자녀는 진지하게 부모와 함께 인봉실로 들어갔다. 의식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가족이 성전에서 나서려고 하는데 크리스토프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거의 눈물을 머금은 채로 물었다. "하지만 엄마, 저 사람들이 언제 우리들을 함께 묶을 거죠?"

침례받고 2년 후, 제라드는 파리에 있는 토목 공학사 자리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2개월 후, 그는 베르사유 지부 장으로 부름받았다. 파리에서 생활하는 동안 그는 수막염을 아주 심하게 앓았는데 의사는 척추에서 수액을 제거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제라드는 가정 복음 교사를 찾아갔고 신권 축복으로 완치되었으며, 어려운 수술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1975년 11월, 침례를 받은 지 7년이 지난 후, 제라드는 프랑스에서 첫번째로 조직된 파리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름받았다. 그로부터 3년 후, 제라드와 애니는 그들의 인생의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제라드가 일하던 회사의 파산으로 그는 다른 직장을 구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프랑스의 그레노블에 위치한 교회 배부 센터(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을 담당)에서 구매 부장을 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서 제라드는 스테이크 부장직에서 해임되어야 했고 또한 보다 적은 수입으로 그레노블로 이사해야 했다.

십이사도 일원과의 면담에서 제라드는 어떠한 제안에도 기꺼이 충실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만일 제가 스테이크 부장직에서 해임되지 않아야 한다면, 저의 가족은 이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저의 사임 의사를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곳에 남아 다른 직장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의 가족은 또한 일 년 동안의 비축 식량으로 이곳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제라드는 스테이크 부장에서 해임되었고, 그레노블의 직장을 얻게 되었다. 그의 가족은 새로운 집을 짓는 동안, 제라드의 어머니 댁에서 잠시 살았다. 약 1년 반 후, 그들의 새로운 집이 거의 완공되었을 때, 제라드에게는 파리의 또 다른 구매 센터를 위한 새로운 자리를 알아 보는 임무가 주어졌고, 그는 토르 시를 찾았다. 그의 가족은 그레노블에 새로 지은 집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다시 옮겨가야 했다. 하지만 그레노블에 있었을 때 제라드는 지방 부장으로 봉사했었다.

위, 왼쪽 : 1988년에 제라드는 인도양 마스카렌 제도의 선교부장으로 부름받았다. 같은 해 9월, 그와 그의 부인, 지라우드 캐리어 자매 *(가운데)*가 선교부가 위치한 레위니옹 제도에서 그 곳의 지역 대회에 함께 참석했다.
오른쪽 : 마다가스카르 섬의 지라우드 캐리어 부장과 최초로 침례받은 다섯 명의 개종자

파리에서 그는 지역 대표로 부름받았다. 애니는 그 시절, 그들이 함께 했던 한 가지 경험을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 남편은 스테이크 대회로 인해 종종 주말을 다른 지역에서 보냈습니다. 대회가 있던 어느 토요일, 알람 시계가 매우 이른 시각에 울렸습니다. 반쯤 잠이 든 채로 저는 제 남편이 침대 맡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제게로 다가와 그 날 하게 될 일들에 대해 물었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던 중, 제게 그가 조금 늦게 출발하길 원하느냐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때 잠에서 완전히 깨었고 당황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는데, 침대에서 일어나려 할 때, 저는 어지러움에 못 이겨 일어서질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회복될 때까지 출발을 잠시 늦추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이 성신의 속삭임에 귀 기울임에 대하여 항상 감사드립니다."

1988년, 제라드는 마스카렌 제도의 레위니옹에 본부를 둔 새로운 선교부를 감리하는 부름을 받았다. 제라드와 애니 그리고 일곱 자녀 중 네 명의 자녀와 함께 그 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 곳에서 선교사 숙소와 사무실로 쓰일, 단지 구식 타자기와 몇 가지 소도구밖에 없는 아파트를 구했다. 그들은 임시로 그 아파트로 옮겨 일하기 시작했다.

애니는 재빠르게 선교사로서 자신의 임무를 받아들였다. 제라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느 날 그녀는 언젠가 학교 자모회에서 만난 적이 있었던 한 아주머니를 슈퍼에서 보았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애니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지만, 애니가 착용한 이름표에 대해 묻지는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슈퍼에서 그 아주머니는 그것에 관해 물었습니다. 한 달 후, 그 아주머니는 침례를 받았고, 그 다음 해에는 성전 의식을 받았습니다."

1991년, 제라드의 가족이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유럽과 지중해 지역이 프랑스 트와레에 사무실을 두고 조직되었다. 제라드는 그 곳으로 옮겨 가 자재부서를 신설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1993년 11월, 그에게는 스위스 제네바 스테이크 축복사라는 현재의 부름이 주어졌다. 그의 자매는 그 당시, 제네바 스테이크 주라 와드에서, 그녀에게 있어선 세 번째로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했다. 그녀는 또한 와드와 스테이크에서 청녀회와 초등협회 회장단에서 봉사했다. 그들의 성장한 세 자녀는 선교 사업을 하였다.

극장 앞에서 선교사들을 만난 이후의 25년을 회상하면서, 지라우드 캐리어 형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회에서의 경험들을 토대로 우리는 항상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임무들은 어떠한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스테이크, 새로운 선교부나 교회의 새로운 지역의 새로운 부서 등을 감리하는 영광이 주어졌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축복사라는 직책으로 우리의 시작은 끝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개척 정신으로 제라드와 애니에게는 보다 많은 시작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

1955년, 제라드와 애니, 그리고 여섯 자녀와의 가족 사진. 결혼한 세 자녀와 여섯 명의 손자녀. 그 당시 일곱 번째 자녀인 프랑스와는 영국에서 선교 사업 중이었음.

엄마의 자취를 따라서

그림: 칼 헨리히 블로흐

다비다 달튼, 요엘렌 존슨에게 이야기한 내용

캘리포니아 주 코스타 메사에 있는 우리 집에서 바쁘게 일하던 날이었다. 그 당시 나는 열 명의 자녀에다 또 임신 중에 있는 아기로 인해 매일 매일이 조금 고달팠다. 그런데 이날은 일상적인 허드렛일을 하는 데에도 애를 먹고 있었다. 모든 것이 세 살짜리 어린 아이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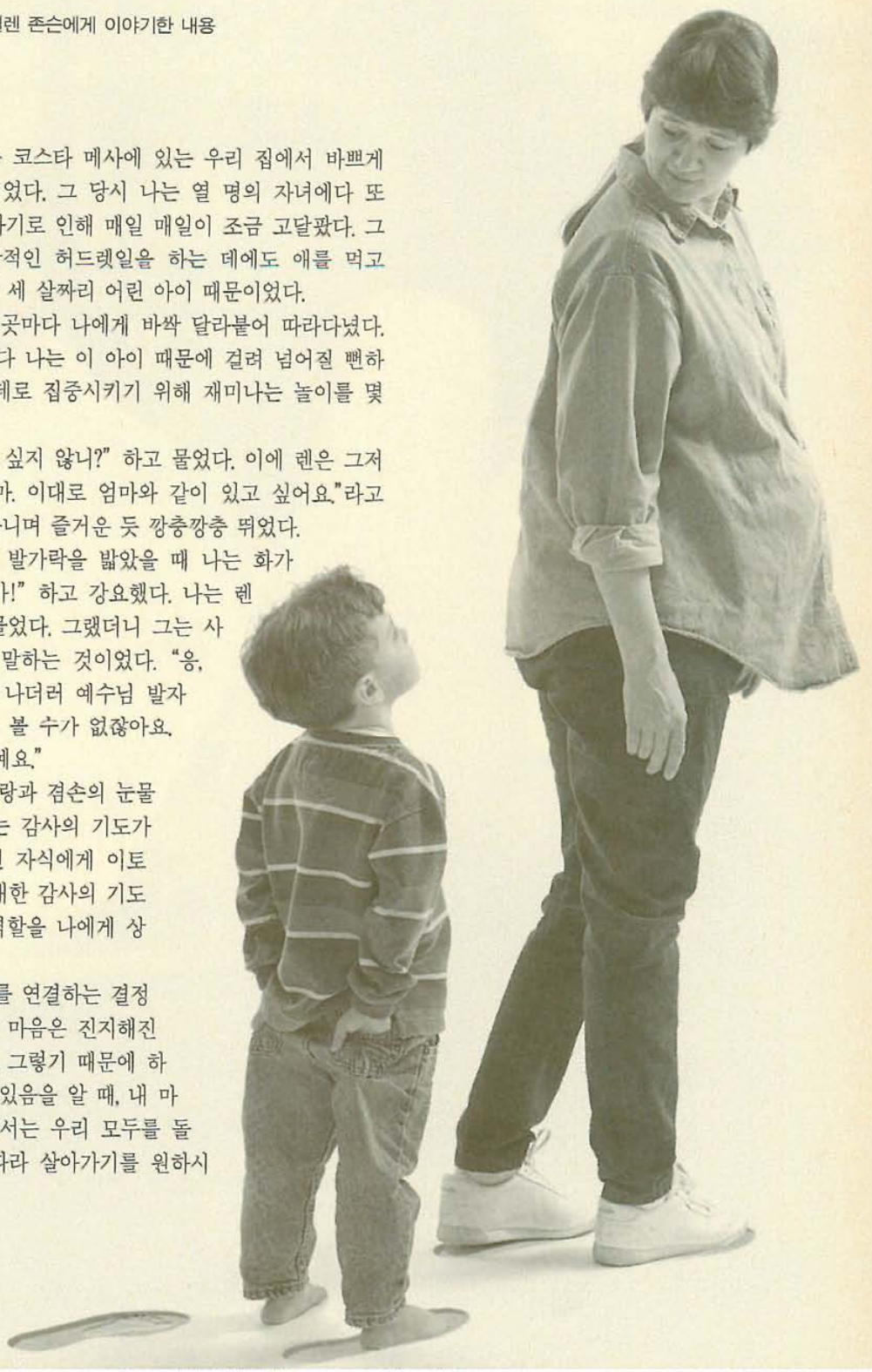
당시에 세 살이었던 렌은 내가 가는 곳마다 나에게 바싹 달라붙어 따라다녔다. 내가 무슨 일로 멈춰 돌아서면 그 때마다 나는 이 아이 때문에 걸려 넘어질 뻔하곤 했다. 그래서 나는 렌의 마음을 딴 데로 집중시키기 위해 재미나는 놀이를 몇 번이나 권유하기도 했다.

나는 다시 렌에게 "그네 타기를 하고 싶지 않니?" 하고 물었다. 이에 렌은 그저 순진하게 미소만 지으며 "괜찮아요, 엄마. 이대로 엄마와 같이 있고 싶어요."라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계속 내 뒤를 따라다니며 즐거운 듯 깡충깡충 뛰었다.

내가 다섯 번째로 발을 헛딛어 렌의 발가락을 밟았을 때 나는 화가 나서 "밖에 나가 다른 애들과 같이 놀아!" 하고 강요했다. 나는 렌에게 도대체 어째서 이렇게 구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는 사랑스런 눈매로 나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응, 엄마, 초등협회에서 선생님이 그러는데, 나더러 예수님 발자취를 따르라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발자취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나는 렌을 양 팔로 꼭 끌어안았다. 사랑과 겸손의 눈물이 나의 얼굴에 흘러내렸고, 가슴 속에는 감사의 기도가 저절로 나왔다. 그것은 세살 밖에 안 된 자식에게 이토록 순진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주신 데 대한 감사의 기도였다. 렌의 말은 어머니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나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내가 어머니로서 자식과 구세주 사이를 연결하는 결정적 고리가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나의 마음은 진지해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더불어 협력자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를 받아야 할 입장에 있음을 알 때, 내 마음은 진정 즐거워진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돌보아 주시며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



저는 영을 느끼지 못합니다. 제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교회에서 말씀을 하는 분들이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영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영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제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다음 대답은 교회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흥미 있는 질문에 대한 지침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답변:

우선 우리는 몇 가지 사항을 분명하게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을 얘기하면서 흔히 말하는 느낌은 성신이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신은 "복음의 진리를 확신시켜 주는 하나님의 권세"라 할 수 있습니다. (*몰몬 백과 사전*, 649쪽) 다시 말해서, 성신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의 신성과 복음의 진실성을 간증합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고 나서 성신을 받기에 합당할 경우 성신은 변함 없이 우리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신이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실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구세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받게 되리라고 믿는 신앙을 지니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성신을 받으리니, 성신은 인간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 나타내 주시느니라." (교리와 성약 18:18)

성신이 임재할 때의 느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으려면 경험이 필요합니다.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셀리아 워크 자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령을 느끼려면 반드시 가슴 속에서 불같이 타오르는 것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갈라디아서 5:22) 입니다. 연사가 말씀 중에 전하는 주제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연사가 전한 말씀에 대해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까? 연사가 말씀한 권고를 즉시 실천하고자 했습니까? 성령이 이따금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지만 영은 대체로 조용히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연사가 말씀을 할 때 연사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느낌을 받고 잠시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편한 느낌을 받거나 마음 속이 뜨거워지고 환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은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입니다. 영을 느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닐선 테세라 데 올리베라와 같이 아래에 열거한 대부분의 독자들은 경건한 가운데 연사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진리를 증거하는 영을 느끼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년의 답변:

저는 집회에서 영을 느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우리 지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선교사를 동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 경우에, 현실은 이상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근무를 마치고 자전거의 페달을 힘껏 밟고 구도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처음 방문하였을 때, 저는 선교사가 복음 토론하는 것을 듣기만 하였습니다. 두 번째 방문을 하였을 때 저는 복음 토론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전에 느끼지 못한 영을 느꼈습니다. 그 느낌이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제 눈에는 어느덧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제가 그토록 영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던 까닭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은 선교사가 전한 토론 내용과 메시지에 제가 흥미를 가졌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는 교회의 집회에서 연사가 말씀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작정입니다. 연사가 전하는 메시지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얘기에 정신을 집중하여 들으면 저는 성령이 제게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닐선 테세라 데 올리베라, 21세
론도노폴리즈 아우로라 지부
브라질 브라질리아 선교부

교회의 집회에 참석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영을 느낀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고 경전 공부를 하며 교회의 부름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자신을 준비한다면 거의 모든 집회에서 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연사의 말씀을 메모하는 것은 연사의 말씀에 정신을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후손을 위해 영적인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박 유 미
충장 와드
한국 광주 스테이크

일요일마다 특별한 집회에 초대 받게 된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집회에서 와드의 회원들과 함께 구세주를 찬양하는 찬송가를 부르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을 기억하며 성찬을 들며 그분께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키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파하는 자와 받아들이는 자는 서로 이해하나니, 둘은 다 덕으로 인도되며 함께 기뻐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50:22)

알레테 아파레시다 알렉산드레
브라질 자르딤 파울리스타

자신을 준비하여 영의 임재를 느끼는 문제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나 도움을 언제나 받을 수 있습니다. 구세주를 여러분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로 삼으십시오. 그분의 계명대로 생활하십시오. 예언자와 교회 지도자가 주시는 권고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라도 성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요일이 거룩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성찬식에 참석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회중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둘러보며 행복감을 느끼십시오. 사람들이 지상에서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열심히 일할 때 그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코 나지, 19세
케츠케메트 지부
헝가리 부다페스트 선교부

문제가 있다면 연사나 듣는 사람에게 있거나, 아니면 양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연사의 준비가 덜 되어 있다든지 듣는 사람이 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연회를 마음껏 즐기려면 공과나 말씀을 준비할 때 기도를 통해 그분의 인도를 간구해야 합니다. 목적 의식을 가진 경청자는 공과 내용과 말씀에 집중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이메 엔리케 코레아 알바레스, 18세
파에야코 지부
칠레 발디비아 스테이크

저는 집회 도중에 아이들이 떠들거나 사람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면 몹시 속상해 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는 연사와 하나가 되어 영을 느낄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말씀에 정신을 집중하니까 옆에서 떠들거나 속삭이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듯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데 열중을 한 나머지 폐회 기도가 끝날 때까지 내내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 날 저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마리아 에스피노자 알베알
칠레 칠리안 스테이크

우리의 생활에서 성신의 동반을 느낀다는 것은 라디오 방송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방송을 똑똑히 들으려면 채널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신을 영접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에 일치하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라디오의 전파 송신처럼 우리가 라디오 채널에 맞추듯 복음의 원리에 일

치하는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성신은 왔다가 오래 머물지 않고 떠납니다. 주님은 "사람이 성령(성신)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함께 오래 머물지는 아니하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130:23)

에드가 로메로 비야미사르
산 안토니오 지부
베네수엘라 마라카이보 선교부

집회가 시작하기 전에 교회에 옵시다. 우리가 지닌 문제를 모두 잊어버립시다. 다만 구세주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위대한 사랑만을 생각합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준비하여 말씀에 귀를 기울여 영을 느낍시다.

로사 에우헤니아 살게로 모랄레스, 16세
엘 킨타날 지부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엘 몰리노 스테이크

집회에서 영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영이 집회에 임재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세주께서 생전에 성역을 베푸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자리를 함께 했다는 것이 경전에 나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그분이 가르치시는 것을 들었고 그분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이 분명히 임재하고 계시다는 아름다운 생각은 신앙과 수련과 경건과 정신 집중과 "참 마음"(모로나이서 10:4)을 가질 때 비로소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12세 및 13세 반
브라질리아 노르테 와드
브라질 브라질리아 알보라다 스테이크

어떤 사람들은 더러는 일상 생활에서 성신이 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내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십대 청소년이었을 때 저는 교회 집회에서 영을 느끼지 못하고 제가 집회에 참석하는 까닭조차 종종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아이의 엄마가 되고 나니, 이제는 사랑과 연민의 정이 생기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간증이 날로 강해지면서 사랑이 많고 자애로운 영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라 시버스, 22세
랑겐호른 와드
독일 노이뮌스터 스테이크

가끔 우리는 그날그날 닥치는 문제 해결에 매달리다 보면 교회 집회의 말씀을 귀담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우리는 영이 임재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공과 시간과 집회에서 우리는 시종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딴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반 데 구스마오 아폴로니오, 20세
바라오 헤랄도 와드
브라질 캄피나스 캐스텔로 스테이크

아래의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을 보내 주시면 질의 응답을 편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성도의 벗 질의 응답 담당자(주소: International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SA) 앞으로 1995년 12월 1일 이전에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적힌 편지가 도착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지에 성명, 주소, 나이, 도시, 나라 및 소속 스테이크와 와드(또는 지부 및 지방부)의 이름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타자하거나 손으로 써도 됩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번역이 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의 사진을 동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편지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대답 내용이 개인적이거나 비밀에 속하는 경우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접수된 대답은 모두가 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 저는 학교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매일 불경스런 말을 듣습니다. 저는 그런 욕설을 입에 담지는 않지만 마음 속으로 저도 모르게 떠올리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욕설을 마음 속으로 떠올리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사라 케스터

양로원 성찬식에 참석한 노인들을 보면서 나는 걱정이 되었다. 그 중 몇 명은 졸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떤 부인은 몇 번씩이나 "난 집에 갈 테야." 하고 소리치기도 했다. 졸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흐린 눈으로 멀거니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우리 와드의 청남 청녀들이 무엇하러 이 성찬식에 왔을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 연로한 교회 회원들에게 성찬을 취할 기회를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면 그들이 하등 괴로워해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청남 한 명이 사회를 보기 시작했다. 여느 때 성찬식처럼 개회 찬송, 개회 기도, 성찬 찬송, 성찬 전달, 연사의 말씀 그리고 폐회 찬송 순서로 진행될 것이었다.

사진 촬영: 조 골드

찬송가, "성도들아 두려울 것 없다"를 부르는 동안 나는 허약하게 보이는 한 자매님을 눈여겨 보았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노래도 부르지 않고 허공 속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겨우 찬송가 책을 보지 않고 부르기 시작했다. 성찬이 전달되는 동안 회원들은 거의 모두 성찬을 취했다. 나는 병자 회원들이 지금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고는 있구나 하고 깨닫기 시작했다.

성찬식이 끝나자 월계반 회장인 쇼나 자매가 나와서 말씀을 했다. 끝까지 인내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인내했던 사람들에게 저 회장의 말씀이 어떤 영향을 줄까 하고, 나는 생각해 보았다.

갑자기 나는 실내에 있는 어떤 실체의 힘에 이끌려 생각이 거기에 쏠렸다.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강한 영을 느꼈다. 나는 실내에 있는 노인 형제, 자매님들을 거의 모두 살펴보고 그들이 쇼나 자매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 형제, 자매로서, 즉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로 결합되어 있었다.

다음의 성구가 떠올랐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린도전서 13:3)

그 성찬식을 가진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사랑, 곧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이었다. □

"감사함도 더욱"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너희 마음이 가득 차게 하라." (앨마서 37:37)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사로 가득 찬 마음은 하나님과 가까워졌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자신의 모범을 통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요한복음 11:41) 예수님이 일곱 개의 떡과 두어 마리의 생선으로 사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축사"를 드리셨습니다. (마태복음 15:36을 참조)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심을 기다리시면서 최후의 만찬의 잔이 자신의 피흘림을 상징하는 것이긴 했지만 그 잔을 들고 하나님께 "사례를 하시었습니다." (마태복음 26:27~28을 참조)

구세주는 배은 망덕으로 인해 몹시 슬퍼하셨습니다. 깨끗함을 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이 구세주를 찾아와 사례를 하자 구세주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누가복음 17:17). 구세주는 말일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만사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하나님을 거역하며…"(교리와 성약 59:21)

그림, 딜리 마쉬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지니게 될 때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음

감사로 가득 찬 마음으로 인해 문둥병자가 구세주를 찾아와 사례를 하였던 것처럼 우리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구세주를 향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게 될 때,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와 닮은 성품이 싹트게 되며 그로 인해 교만과 이기심과 용서할 줄 모르는 강퍅한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범사에 주 네 하나님께 감사하라"(교리와 성약 59:7)는 말씀에 순종할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방법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한 젊은 어머니가 세 살이 된 아들의 침대 가에 무릎을 꿇고 아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드리는 기도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 기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지한 기도였습니다. 아들이 형을 주시고 눈을 내려 주시며 구름을 주시며 피자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들으면서, 자신이 그런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때를 되새겨 보려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건강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며 복음을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지녔지만, 그녀는 자신의 생활에서 베풀어지는 일상적이고 평범하며 사소한 축복을 흔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러한 사소한 축복을 감사하는 기도를 매일 드리게 되자 세상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어머니는 슬픔과 시련을 어렵지 않게 이겨 낼 수 있게 되었고 영적으로 충만함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사 레이 터너, *엔사인*, 1992년 7월호, 51~52쪽 참조)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감사를 표시할 때 그것은 곧 우리가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신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엔사인*, 1992년 5월호, 64쪽)

감사에 가득 찬 마음은 영적으로 성숙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임

기도와 간증과 대화 속에서 그리고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태도 속에서 감사한 마음을 나타낼 때 이는 "진실로 마음에 감사로 가득 찬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음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자카르타에 소재한 호화로운 맨션에 살고 있든지 아니면 지붕에 비가 새는 형편 없는 집에 살고 있든지, 상관 없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붕에 비가 새는 집에 살고 있는 한 자매가 비가 내릴 때면 부엌에서 우산을 받쳐 들고 있어야 했지만, 그래도 두 딸이 학기말 시험을 잘 본 것에 대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엘레인 엘 잭, "새로운 삶을 터득함", *브리감 영 대학교 1992~1993년 영적인 모임 및 노변의 모임 말씀*, 47~55쪽)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자는 영화롭게 될 것이요." (교리와 성약 78:19) 이러한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에서 우리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그 말 한 마디 한 마디는 "감사함도 더욱"에 못지 않게 감사로 가득 찬 것이 될 것입니다.

- *여러분이 감사하는 축복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감사를 표시하는 그 말 한 마디가 가족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 □

주님은 나의 힘이시다

아나 루고보니 루즈

나는 브라질에서 어린 소녀였을 때부터 위대한 일을 성취할 꿈을 꾸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매우 수줍음을 잘 타고 불안정하였다. 중요한 일은 무엇이나 해낼 수 없을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한 수줍음 때문에, 때때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오해를 받기도 했고, 내가 시도한 일이 대부분 실패로 돌아가기도 했다.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나는 지금까지의 내 자신을 숨겨오던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이 늘어가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부족함에서 벗어나는 방법—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다.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았을 때, 나는 아이들의 장래도 생각해야 했으므로 그 길을 찾는 것에 관해 전보다 더욱 고민하였다.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 무슨 일을 해야 하지?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지?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은 내가 소심했기 때문에 여러 번 실패했던 경험을 전해 주는 것 뿐 이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두 명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선교사가 우리 집 대문을 두드렸다.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쳤을 때, 우리에게 밝은 미래의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로 올바른 길인가를 알아내야 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남편은 처음에 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토론이 끝난 후, 우리는 침례받는 것을 보류했다. 그러나 교회의 모든 활동에는 계속 참석하였다.

그로부터 2년 후, 나의 큰 아들이 사고를 당했다. 이 때 인생이란 참으로 연약한 것이며 영생을 준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이 떠올랐다. 나는 침례받기로 결심했다. 나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의 남편도 침례받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1976년 6월 26일, 우리 가족 네 사람은 침례받아 교회 회원이 되었다.

나는 내가 여태까지 찾고 있었던 그 길을 찾아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재능을 주셨으며 내가 그 재능을 개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 주었고 부족한 이대로의 나를 받아 주었다.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성숙해지는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계시며, 수줍음 때문에 더 이상 나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음을 알았다.

나는 배우며 진보하기 시작했고, 교회에서 몇 가지 부름을 받아 그 직분을 수행하였다. 상호부조회를 통해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되는 것을 많이 배웠다. 무도회에 참가하고 연극과 합창단에도 참가했다. 프로그램도 조직해 보고 몇 가지 기술도 배웠다. 지금은 음악을 공부하고 있다.

나의 남편과 두 아들도 복음 안에서 계속 성장해 왔다. 작은 아들은 브라질에 있는 리우데자네이루 선교부에서 복음 선교사로 봉사했다. 우리 가족은 지금 모두 상파울루에 있는 모기 센트로 와드에서 활동 회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나는 지금 거의 60세이며,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단 교육 담당 보좌로 봉사 중이다. 나와 나의 남편은 상파울루 성전에서도 봉사하고 있다. 나는 아직도 수줍음을 많이 타지만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에는 자신을 숨기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교회가 나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나의 목표는 지혜와 영성을 키우고, 재능을 발전시키고, 겸손해짐으로써 영생을 준비하는 것이다. 나는 항상 성취할 수는 없다 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으로서 언젠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갈 것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그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 주신 덕택이며, 내가 그분의 교회의 회원이 된 덕분이다. □

십 대 청 소 년

윌리엄 지 다이어

제가 가족 관계에 대해 와드 주일학교 시간에서 다룬 주제는 십대 청소년과 대화를 하는 문제였습니다. 모두가 십대 청소년의 부모인 반원들에게 청소년을 다루는 데 가장 큰 애로 사항을 들어 보라고 했더니 하나같이 꼽는 첫째 문제는 자녀가 부모와 스스럼없이 대화를 나누게 할 수 있는 방법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부모들에겐 그들을 괴롭히는 문제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막상 어떤 문제가 있느냐고 물으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라든다, 아니면 "당신은 이해 못할 거예요."라고 답변합니다.

그들은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를 들었지만 열이면 열 한결같이 입을 모아 얘기하기를 "이러한 문제를 서로 의논할 수 있으면 십대 청소년이 세상의 문제를 보다 슬기롭게 해쳐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텐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화의 통로를 염

어떻게 하면 부모가 자녀와 대화를 잘 할 수 있을까?

부모들은 자녀들이 그들의 관심사를 스스로 가져와서 부모의 자문을 구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원인 부모들에게 부모를 찾아가서 자기 문제를 상의하는 청소년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청소년은 거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청소년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문제를 거론하여 상의하면, 저 자신은 물론 부모를 곤혹스럽게 만들까봐 걱정이 되어서요."라든가 "부모가 이해하시지 못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제가 쓸데없이 너무 걱정한다고 하든다, 모든 것이 결국 잘 될 것이라고만 말할 것이 뻔해서요."

한 아버지는 십대의 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내게 와서 상의하면 어떻겠니?"

아들은 이렇게 답변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문제를 할아버지와 상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일이 없었단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렇다면 애기할 것도 없겠네요."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는다는 것은 대화의 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십대 자녀가 얘기를 하고 싶어하고 부모가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그 때가 바로 부모가 자녀의 얘기를 경청해야 하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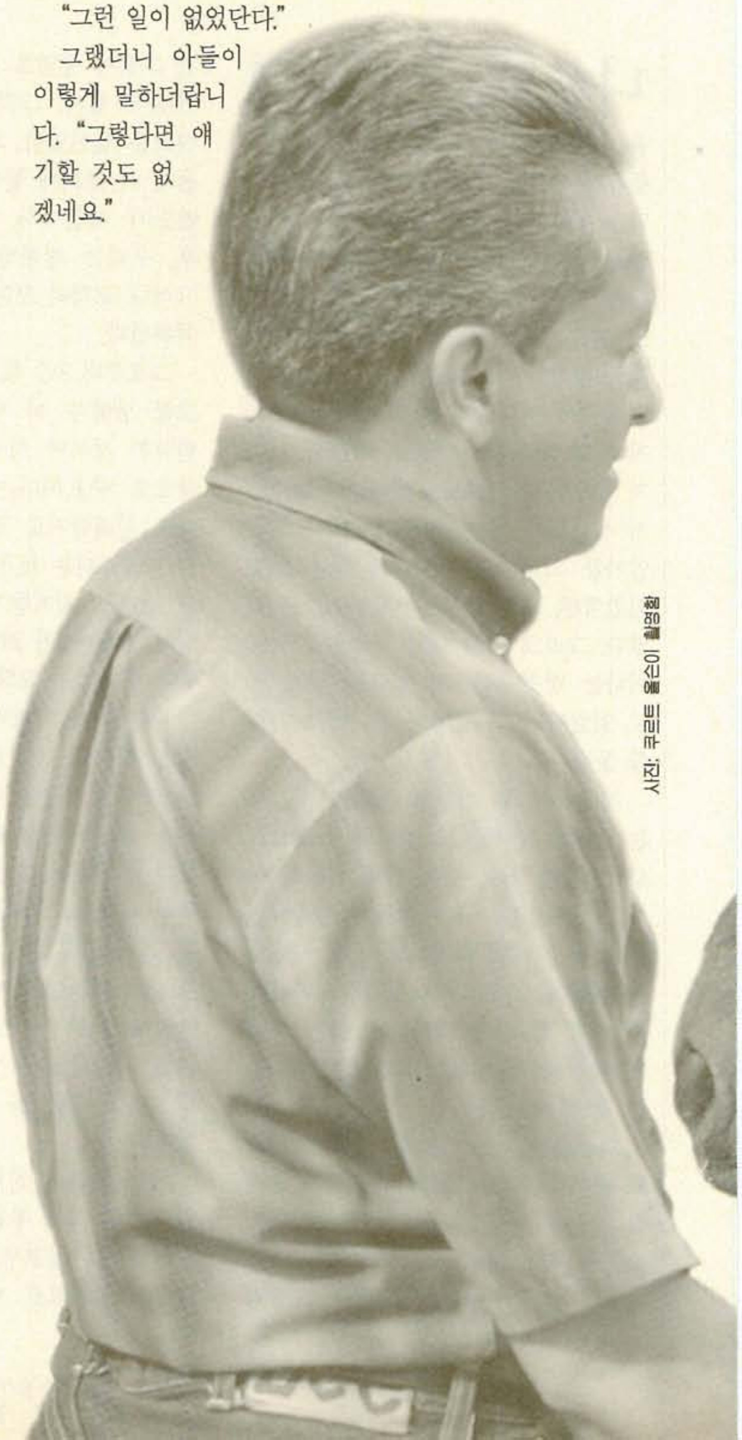


사진: 쿠르트 올슨이 촬영함

과 의 대 화

십대의 자녀가 부모를 찾아가서 자신의 심각한 문제를 상의하지 않는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녀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부모가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잘 못하게 되면, 부모가 꼬치꼬치 캐묻는 것처럼 되고 맙니다. "오늘 무척 우울해 보이는구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이번 시험 성적이 형편이 없더구나?"

더 나은 방법은 자녀에게 여러분의 경험담을 들려 줄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청소년은 말이 별로 없지만 과거에 여러분이 시험을 망쳤을 때 또는 데이트 신청을 했다가 퇴짜를 맞았을 경우라든지, 아니면 수학 선생님을 싫어했던 일이라든가 파티에 초대를 받지 못했을 때 느낀 참담한 심경을 들려 주면 대체로 관심을 가지고 듣습니다.

저의 반원인 두 어머니가 이 방법을 시도하여 약간 다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아들은 학교의 특별 활동과 자신이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회에서 생각대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낙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과거에 나쁜 점수를 받고 느꼈던 참담한 심경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머니 자신도 언제나 완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어쩌면 그가 어머

니로부터 완벽 주의 성격을 닮았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아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과거의 자기보다 실수를 더 슬기롭게 극복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얘기를 재미있게 듣고 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잘 얘기해 주셨어요. 듣고 나니 제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어머니는 십대 시절에 겪었던 경험을 아들에게 들려주면서 부모와 선생님들은 자기가 하려는 일을 이해해 주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일을 들려 주었습니다. 얘기를 마치자 아들을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기 다 끝났어요?" 어머니가 그렇다고 하니까 아들은 한 마디의 얘기도 없이 나가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태도로 보아 자신의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아들에게 들려 준 얘기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느낌에, 어쩌면 그는 그 어머니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감명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적어도 어머니의 얘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과거에 어머니가 질문했거나 훈계했을 때 종종 그랬던 것처럼 변명 같은 것을 늘어 놓지는 않았으니까요.

얘기를 주의 깊게 듣는다는 것은 대화의 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늘 그렇듯이 한 쪽이 얘기하면 상대방은 이해를 하려고 하면서 경청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경청하는 기회를 찾기란 쉽지 않은 것인데,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는 얘기를 부모들은 종종 들었을 것입니다. 십대의 청소년이 얘기를 하고 싶어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얘기를 들어 주며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회는 "경청의 순간"이라고 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오면 부모는 조용히 듣기만 해야 합니다. 일부러 수긍하면서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가 학교가 싫다고 하든지 친구가 없다고 하든지, 아니면 동생이 싫다고 하는 말에 부모는 맞장구를 칠 필요는 없습니다.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듣고 보니 그것 참 안 됐구나." 상대방이 이해를 해 주었다고 생각하는 자녀는 어쩌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해결책을 생각할 것입니다.

자녀의 나이가 아주 어릴 때 부모가 대화의 통로를 열어 둔다면 자녀가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경험, 관심사, 걱정거리 및 기쁨을 부모와 함께 나누는 것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사진 촬영: 월터 에더스

신뢰의 폭을 넓힘

십대의 청소년이 부모와 여러 해를 두고 대화를 하다 보면 부모를 믿고 토의 중에 제기되는 문제를 소신껏 다룰 정도로 신뢰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신뢰의 폭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청소년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부모가 내 말을 이해했다고 믿어도 될까? 부모가 화를 내거나 눈물을 흘리는 등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묵묵부답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다고 믿어도 될까? 부모가 너무 빨리 속단하여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지 않았다고 믿어도 될까? 부모가 말하고 싶을 때가 아니고 내가 부모를 필요로 할 때 언제나 도움을 청할 수 있다고 믿어도 될까?

신뢰의 차원을 높이게 되면 사랑이 싹트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거의 누구나 할 것 없이 서로를 사랑합니다. 사랑이란 다만 부모와 자녀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무조건)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뭔가 다른 속셈에서, 아니면 모욕을 주고자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녀가 깨닫게 되면 해를 거듭하면서 부모를 신뢰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신뢰로 인해 사랑이 커지면서 스스럼없는 대화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 신뢰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신뢰는 신뢰를 낳게 마련입니다. 청소년이 신뢰를 받기에 합당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그것을 느끼게 한다면 양자 사이에 유대의 뿌리가 깊어집니다.

한 친구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자신이 십대 청소년이었을 때 아버지에게서 체험했던 일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와이오밍 주에 말일성도가 많이 사는 한 작은 마을에 있는 고등 학교의 농구 선수였습니다. 어느 날 밤 팀 소속의 몇몇 농구 선수들이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 서글픈 일이로구나. 네가 현장에 있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텐데." 자식을 믿는 이 한 마디가 아들이 아버지를 믿는 신뢰의 폭을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크게 넓혀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부자지간에 믿음 없이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문제까지 아버지와 쉽게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은 부모와 신뢰 관계를 시험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부모의 반응을 떠 보고자 실재하는 일이나 가설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를테면 자식은 이런 얘기를 꺼낼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와드의 한 소년이 선교사 부름을 거절한다면 부모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 같아요?" 질문자의 부모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신뢰의 폭이 넓어지거나 그대로이거나 혹은 적어지기도 합니다.

문제 해결의 자세를 취함

십대의 자녀가 신뢰의 폭을 시험하는 질문을 할 때 문제 해결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십대의 자녀가 "다음 학기의 세미나리 등록을 하지 말아야 하겠어요."라고 말할 경우 부모는 여러 가지 답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대답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 흥분해서 따질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태도를 취할 수도 있겠지요. "네가 세미나리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아무래도 어려운 결정이었겠지. 그런데 세미나리에 무슨 문제가 있니?"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는 문제의 실체를 올바르게 보고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역점을 두는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십대 자녀는 부모가 일을 그르치리라고 염려하기보다는 부모를 믿고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녀가 아주 어릴 때 부모가 대화의 통로를 열어 두는 것이 아주 이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어린 자녀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들려 줍니다. 이를테면 엄마 아빠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된 경위라든가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느낀 소감이라든가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장점과 성취도라든지 선교사업을 했던 경험과 가족이 겪은 갖은 시련 등이 이에 해당하겠지요. 이런 식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실생활의 경험을 들려 주어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이와 같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자녀가 십대에 들어서도 부모의 경험담을 자녀에게 들려 주는 것이 조금도 이상할 게 없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지사야 어쨌든 간에 자녀와의 관계에서 좀 늦긴 해도 대화의 통로를 열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간에 일단 신뢰가 구축이 되면 신뢰를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굳이 사실을 캐보거나 따질 필요도 없이 경험담을 서로에게 들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몇 년 사이에 망가진 대화의 통로를 치유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부모가 믿음을 보여 주려는 각별한 노력이 있을 경우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

더 이상 외인이 아니다

존 넬슨 슈나이더

유타 주 바운티풀에서 성장한 나는 유타 주 밖의 교회에 관하여는 별로 아는 것이 없었다. 내가 속해 있는 와드 밖의 사람은 누구나 외인이요 객으로 보았다. 그러다가 내가 아일랜드로 선교 사업을 나간 후에야 비로소 우리 교회가 범세계적인 조직체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우리 교회의 실상을 내가 인식하게 된 데는 다음의 경험이 특히 도움이 되었다.

내가 열네 살이었을 때 나의 부친은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들은 부친이 화학 요법을 받을 경우 8년 이상 생존할 가능성이 50%라고 말했다. 다른 대안이 있었지만 그런 치료법은 화학 요법보다 훨씬 못하기 때문에 부친은 6개월간 매주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다.

화학 요법 치료가 끝나갈 무렵, 우리 바운티풀 와드에서는 나의 부친을 위해 특별 금식을 했다. 그것은 신앙 안에서 모든 회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금식에 참여하는 획기적인 경험이었다. 금식 후 다시 검사를 했는데 의사들은 부친에게서 암 증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 나는 선교 지역으로 떠난 후, 부친으로부터 병세가 꾸준히 호전되고 있으며 마라톤까지 할 수 있다는 편지를 받았다. 이와 같이 형세는 좋아지는 듯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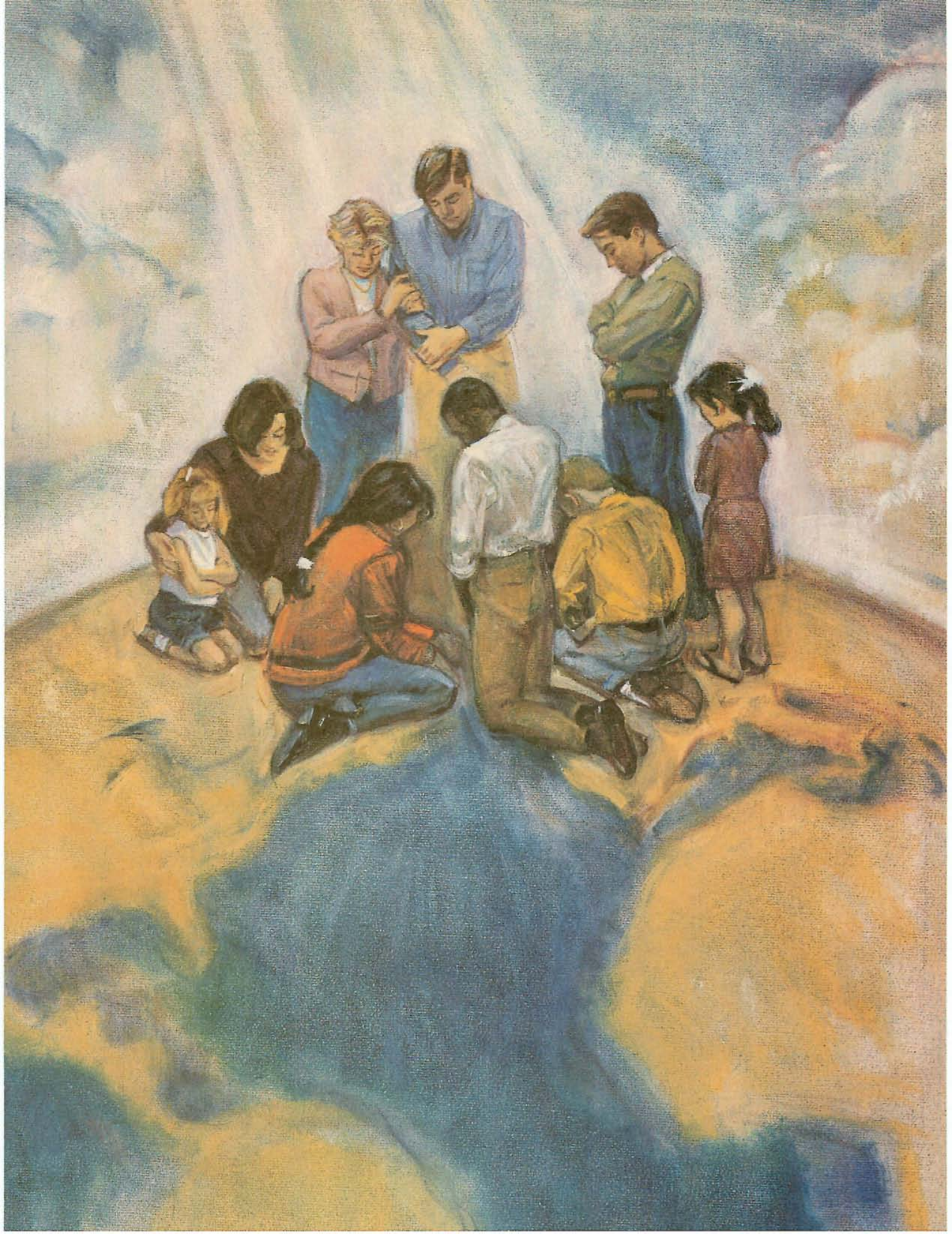
선교 사업이 끝나기 전 여름, 나는 동반자 코사 장로와 함께 봉사하고 있었는데 그는 프랑스 부르도 지역의 한 지부에서 온 장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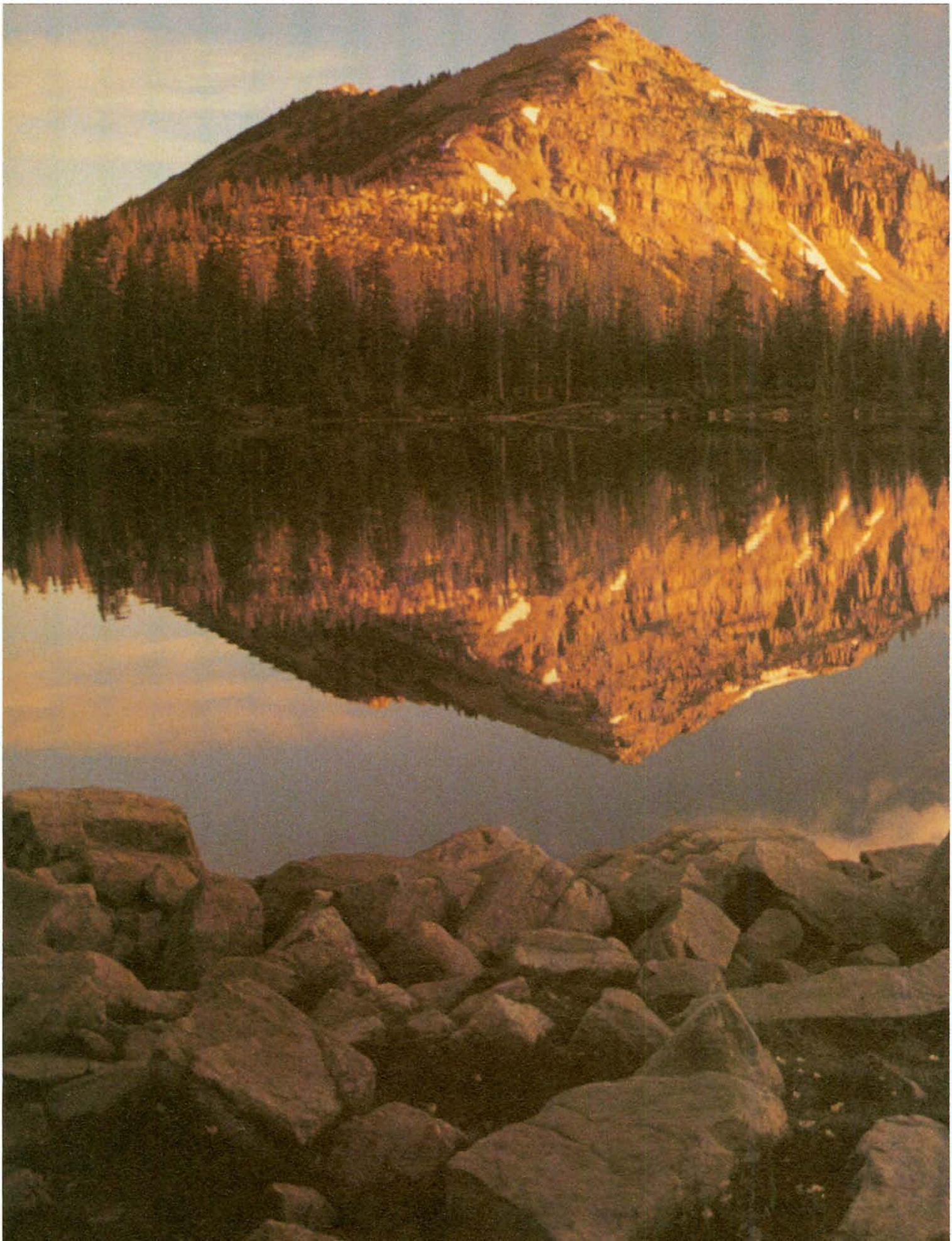
어느 날 아침 선교부장님이 나를 그분의 사무실로 부르시더니 나의 부친으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알려 주었다. 전화가 울리자 선교부장님은 자리를 뜨고 나 혼자 남게 되었다. 나는 왠지 불안한 마음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부친은 안부를 물으신 후, 암이 재발하였으며 다시 화학 요법을 받아야겠다고 말씀했다. 나는 그 다음에 모친과 통화했으며, 모친은 우리 와드에서 또 다시 금식할 계획이라고 알려 주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나도 와드의 금식 날에 금식하겠노라고 말했다. 나는 수화기를 놓은 후 눈물을 닦고 사무실 밖으로 나왔다.

선교 지역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부친에 관한 이야기를 코사 장로에게 들려 주었다. 나의 말을 들은 그는 자기도 나와 함께 금식하겠노라고 약속했다. 그의 약속은 나에게 위안을 주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프랑스에 있는 그의 가족에게 편지하여 이 금식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그 결과 그의 가족도 역시 나의 부친을 위해 금식할 것이며, 부르도 지부의 모든 회원들에게 부탁하여 그들도 이 금식에 참여토록 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나는 그들이 모르는 사람의 건강을 위해 금식하겠다는 말을 듣고 자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때, 나는 성신의 속삭임을 들었다. 그리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에베소서 2:19)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갑자기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는 모두 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질병이나 사망보다 더 강한 유대로 복음 안에서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참으로 우리는 형제요 자매다. 우리 가운데 누가 어느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는 외인이 아닌 것이다. □





지상의 천국

사진 촬영: 돈 라이딩
그림: 칼 하인리히 블로흐

"경전이 네 앞에 놓여 있어 절마다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나니 땅과 땅위의 만물과" (앨마서 30: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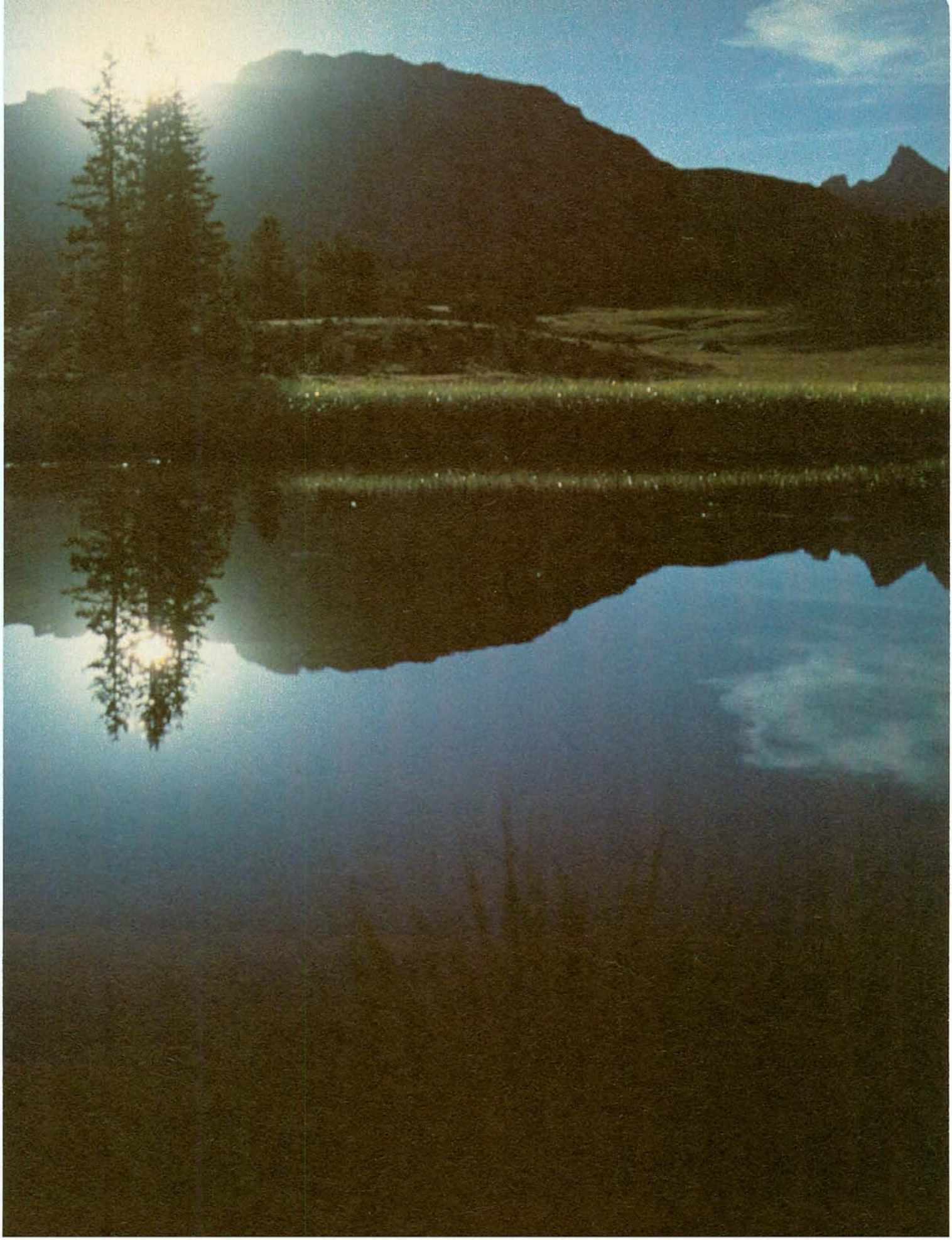
높은 산꼭대기에서 휴식을 취할 때, 바닷가를 산책할 때, 시냇가에 앉아 있을 때, 한 송이의 하느작거리는 꽃을 들고 있을 때, 떠오르는 태양을 지켜보고 있을 때, 이런 때에는 대지가 그 창조물에 대해 기뻐 소리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같이 우리가 영적인 것을 더 잘 느끼는 데 자연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런 까닭에 주님과 그의 예언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지상에 보내 주신 것들에 대한 기쁨과 경이를 느낄 수 있도록 자연계의 사물을 인용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당시, 그분들이 자연계의 사물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성구들은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적인 감동도 풍겨 준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이사야 40:8)
"나는 포도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5)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지를 창조한 자니, 어두움 속에 숨기울 수 없는 빛이니라."
(교리와 성약 14:9)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14)

"산들아, 기쁘 소리 지르라. 너희 모든 골짜기여 크게 외치라. 너희 바다와 마른 땅이여, 너희 영원하신 임금이 행하신 기이한 업적을 말하라."
(교리와 성약 128:23)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 하리로다"(시편 62:6)

"내가 음성을 높여, 나의 하나님이시며 의의 반석이신 당신께 간구하겠나이다. 보소서 나의 음성이 영원토록 나의 반석이시며 영원한 하나님이신 당신께로 향하겠나이다."
(니파이이서 4:35)

주님을 대신하여

에바 씨 빈

일요일 성찬식이 끝나자 나의 마음 속엔 아름다운 여름날을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전 공과와 모임이 끝난 후 나는 집안 일과 저녁 식사에 올릴 식단에 대하여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했다.

우리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미망인인 제니 자매님 댁을 방문해야 한다는 강한 느낌이 떠올랐다. 교회에서 그녀의 모습이 몇 주간 보이질 않았었다는 기억에 미치자 강한 죄 의식 같은 것이 느껴졌으며, 무슨 일로 그분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나 하는 궁금증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곧 그런 생각을 떨쳐 버리고 내 남편과 자녀와 함께 즐거운 일요일 만찬을 갖는 것에 관하여 생각했다.

저녁 식사 후, 또 다시 제니 자매님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마음 속으로 '나는 이미 교회 모임에서 여러 시간을 보냈어. 이 오후를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은 합당해.' 라고 생각하면서 제니 자매님에 대한 생각을 잊으려 애썼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 봐도 제니 자매님에 대한 생각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네 이웃을 방문하라는 고요하고 작은 음성이 또 다시 나의 귓가를 스치는 듯했다.

결국 나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제니 자매님의 집까지 걸어가 초인종을 눌렀다. 제니 자매님이 수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나와서 나를 맞이했다. 나를 보자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고 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자매님이 우리 집에 와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었어요."

얼마 동안 제니 자매님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에 관해 이야기하였고 나는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듣고 보니 그녀의 가족은 중대한 시련을 겪고 있었다.

제니 자매님은 집안에 이혼 문제가 제기된 소식을 근래에 들어 알게 되었다. 그녀는 이 위기를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이 어려운 사정을 들어 줄 사람을 만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기도했다. 그 결과 성령이 나를 제니 자매님 댁으로 인도하고자 했던 것이다.

나는 제니 자매님 댁을 방문함으로써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주님이나 주님의 자녀에게 봉사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시간, 어떠한 날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의 고요하고 작은 음성이 지시하는 것에 따를 것을 기대하신다. 주님은 흔히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이웃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

** 이름은 가명을 사용했음.*

그림: 레이번 쏜튼

나를 위해 창조되었네

베싸니 엠 갈브레이쓰

어느 일요일 오후 성찬식 모임에서였다. 모두들 귀환 선교사의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나는 의자 뒤에서 두 명의 어린이가 아웅 깍꼭 놀이 하는 것을 즐겨 보고 있었다. 일요일 모임이 나에겐 의미 없는 의식처럼 느껴졌다. 나의 친구들 중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도 없었다. 따분하고 심심했기 때문에 나는 뾰로통하게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나는 우연히 오른쪽 어깨 너머로 시선을 돌려 보았다. 엄마와 아빠가 눈물을 머금고 있었다. 나는 또 실내 여기 저기를 돌아 보았다. 많은 사람들의 뺨이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다음에는 최근 귀환한 선교사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이렇게 말하는 음성이 들렸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은 특히 성찬식 모임에서 내가 많이 들었던 말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 하고 자문하곤 했었다. 그런 생각이 또 다시 떠올랐다. 폐회 기도가 진행되는 동안 그런 생각 때문에 나는 약간 죄 의식을 느꼈다.

이날 저녁 늦게 우리 가족은 모여서 가족 경전 공부 시간을 가졌다.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앨마서 30장에 있는 말씀이었다. 나의 형 짐이 적 그리스도인 코리호어가 앨마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 대목을 읽었다. 형이 읽은 43~44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었다. "이에 코리호어가 앨마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을 만한 표적을 네가 나에게 보여 준다면, 네 말이 참되다는 것을 인정하리라.

"앨마가 그에게 말하기를, 경전이 네 앞에 놓여 있어 절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나니 땅과 땅 위의 만물[도]…절대 창조자가 계심을 증거하느니라."

그날 밤 나는 자리에 가만히 누워 앨마의 이 말씀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꽃, 나무, 동물 등 땅 위의 온갖 피조물에 관해 생각했다. 또한 인간의 창조는 그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던가! 이렇게 자리에 누워 오랜 시간을 생각하다가 초등협회에서 배웠던 다음의 노래 가사가 떠올랐다: "부드런 장미 만질 때나 라일락 옆 지날 때 이 세상에 사는 것 기뻐져요. 주는 세상을 창조했네."

나의 뺨에 눈물이 흘러 내렸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해 달라고 빌고, 나를 위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신 데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

이제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심을 알고 있다. □

고결한 성품

그것은 문자 그대로 여러분의 생활에 대한 시험입니다.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주님은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나의 종 하이람 스미스는 복이 있나니, 이는 저의 마음이 고결하며 내 앞에서 올바른 것을 사랑하므로 저를 사랑하는 연고니라."(교리와 성약 124:15) 저는 이보다 더 큰 칭찬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고결한 성품이란 즉각적인 결과가 어떻든지 언제나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 행동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생각과 마음에서,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의 의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고결한 성품에는 신의와 서약에 거짓될 수 없는 신뢰성이 포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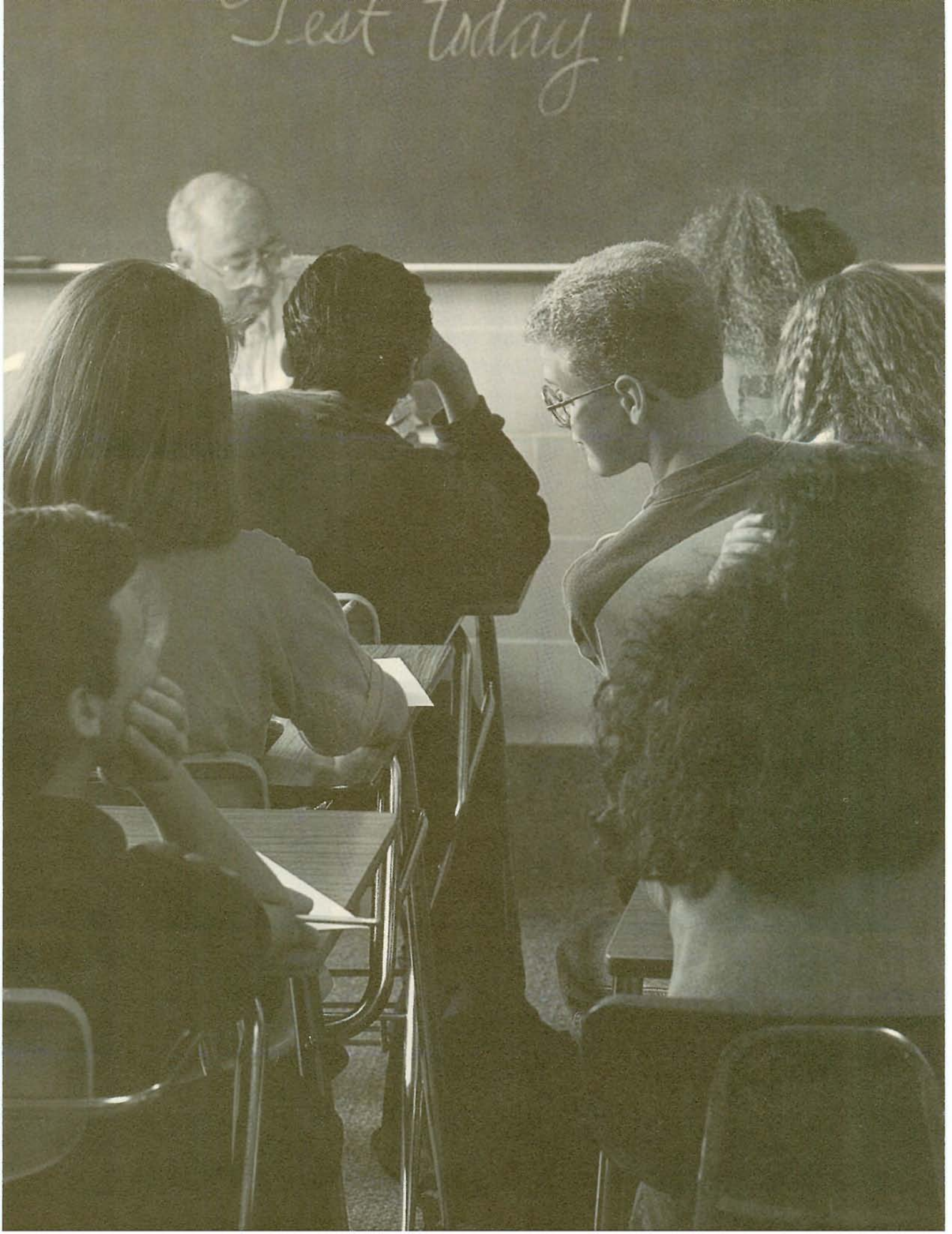
우리 모두는 무엇이 올바르고 선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이상, 우리는 항상 선을 택해야 합니다. 흔히 속임수, 기만, 사기, 표리 부동 등이 이 세상에서 용납되는 듯 하더라도 우리는 잘못 인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 속임수 등은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도덕적, 윤리적 표준인 성실은 말일성도의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 옛날 욥처럼 우리도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욥기 27:5)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은 그가 소중히 여기던 가족, 친구, 건강, 재산 등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의 고결한 성품을 결코 버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와 정반대로 오늘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결한 성품을 별로 가치도 없는 것과 바꿉니다.

사탕, 화장품, 보석 등을 가게에서 훔치는 사람은 몇 푼 안 되는 이득을 위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고결한 성품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수입을 보고하지 않거나 세금 감면을 근거 없이 주장하여 소득 신고를 속이는 사람은 소득세를 조금 지불하기 위해 매우 값진 자기의 고결한 성품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상품이나 용역에 대해 즉시 값을 치르기를 기피하는 사람은 자신의 소중하고 고결한 성품을 일시적인 이익과 바꾸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성실하지 않은 남편이나 아내는 그들의 값진 성품을 덧없는 순간의 환락과 바꾸는 것입니다. 고결한 성품은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매우 소중한 것이며 그 가치는 무한한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고결한 성품의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성품을 지녔으므로 요셉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의롭고 선한 일을 행했으며 신뢰할 만한 인물이었고 청렴 결백했으며 결코 신의를 저버리지 않을 만큼 자기 수양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성품이 고결하고 의로웠음으로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생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로마서 8:28)게 된다는 증거가 됩니다. 요셉의 모범이 특히 우리와 관련이 깊은 이유는 대부분의 회원들이 그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그를 사랑했습니다. 주님은 요


Test today!

셉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꿈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그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 갔을 때 주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신하인 시위 대장 보디발의 집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접근하자, 그의 의로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어떠한 종류의 가격표를 달아 놓으시겠습니까?

성격상 보디발의 신뢰를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의 합당하지 못한 유혹을 거절하고 도망쳤습니다.

이 거절과 그로 인한 고발 때문에 요셉은 옥에 갇혔습니다. 다시 주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감옥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요셉에게 바로의 술 시중 드는 자와 떡 굽는 자의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후 바로가 말한 일곱 마리의 살찐 소와 여윈 소에 대한 꿈과 무성한 일곱 이삭과 마른 일곱 이삭에 대한 꿈도 해석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결국 요셉은 바로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 전 애굽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풍년일 때는 곡식을 저장하고 흉년일 때는 곡식을 나눠 주는 일을 지시했습니다.

흉년 동안, 22년 전에 요셉을 노예로 판 그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한 채 그의 높은 지위 때문에 그에게 몸을 굽혀 절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고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은 참으로 감동적인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자기가 받은 학대에 대해 보복하기 위해 형들을 노예로 만들고 감옥에 가게 하거나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의롭고 선한 일을 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인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창세기 45:4~8)

요셉을 통해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시고 애굽에서 그들이 번성하고 증가하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잘 알려진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특히 요셉의 고결한 성품과 그것이 그에게 가져다 준 축복에 중점을 두고 이 이야기를 다시 읽으시길 권고 드립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가문에서 상속권을 가진 아들이 되었으며 미 대륙을 상속의 땅으로 받았습니다.(이더서 13:8 참조) 주님은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할 모세에 대해 예언하게 하셨으며,(요셉 스미스 역, 창세기 50:27~29 참조) 말일에 복음을 회복시킬 요셉 스미스에 대해서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요셉 스미스 역, 창세기 50:30~33; 니파이 이서 3:6~21 참조)

좀더 근대로 들어와 고결한 생활의 모범을 보인 사람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입니다. 그는 자기가 기록한 정확한 비용만을 정부에서 받는 것 외에는 모든 보수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생애 중 45년을 나라를 위해 봉사했습니다.(데이비드 오 맥케이, *행복한 인생의 비결*, 솔트레이크시티:북크래프트사, 1967년, 142~144쪽 참조)

예언자 요셉 스미스 역시 고결한 성품의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그는 주님이 지시하신 일을 할 때에는 목숨이 위험할 때 조차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결한 삶을 살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길 기대하십니다. 주님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누가복음 6:4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태복음 7:21)

조금 거짓말을 하거나 조금 속이는 것, 또한 합당하지 않은 작은 이득을 취하는 것 역시 주님께서 받아들이실 수 없는 것입니다.(나파이이서 28:8 참조) 경전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조심스럽게"(21절) 우리를 파멸로 끌고 가는 사탄의 방법이라고 경고합니다. 세상은 고결한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사기, 기금의 악용, 거짓 광고 또는 이득을 얻으려고 속이거

나 기만한 일들에 관해 듣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행위를 무척 싫어하십니다. 만일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지나치게 이 세상 것에 얽매어"(교리와 성약 121:35) 있으면, 우리는 쉽게 고결한 성품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고결한 성품에 대한 보상은 측량할 수 없이 큽니다. 그 중 하나는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음을 아는 데서 오는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평화와 평온이며, 또 다른 하나는 죄를 지음으로써 오는 죄책감과 불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결한 성품으로 인한 또 다른 보상은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써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덕으로써 우리 생각을 장식할 때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의 신임이 두터워질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21:45 참조) 우리가 옳은 일을 할 때는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데 머뭇거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주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 주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고결한 성품에 대한 최고의 보상은 성신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21:46 참조) 우리가 악을 행하면, 성신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옳은 일을 행하면, 우리와 함께 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평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면에서 고결한 성품을 밖으로 실천하도록 노력합시다. 작은 일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형성하게 됩니다.

1990년 4월 연차 대회에서 하신 말씀에서 발췌함.

가치있는 것 : 퀴즈

성품이 고결하다는 것은 아주 작은 일에도 정직한 것을 의미한다. 다음에 여러분의 성품이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고결한가를 아는 데 도움이 되는 퀴즈가 있다. 각 상황을 통독한다. 그런 다음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본다.

1. 곧 여러분한테 시험이 다가온다. 같은 선생님에게서 배웠지만 다른 학생들은 이미 시험을 치뤘다. 그들이 여러분한테 무슨 문제가 나오는지를 알려 주겠다고 한다.

2. 몇몇 친구들이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농담을 던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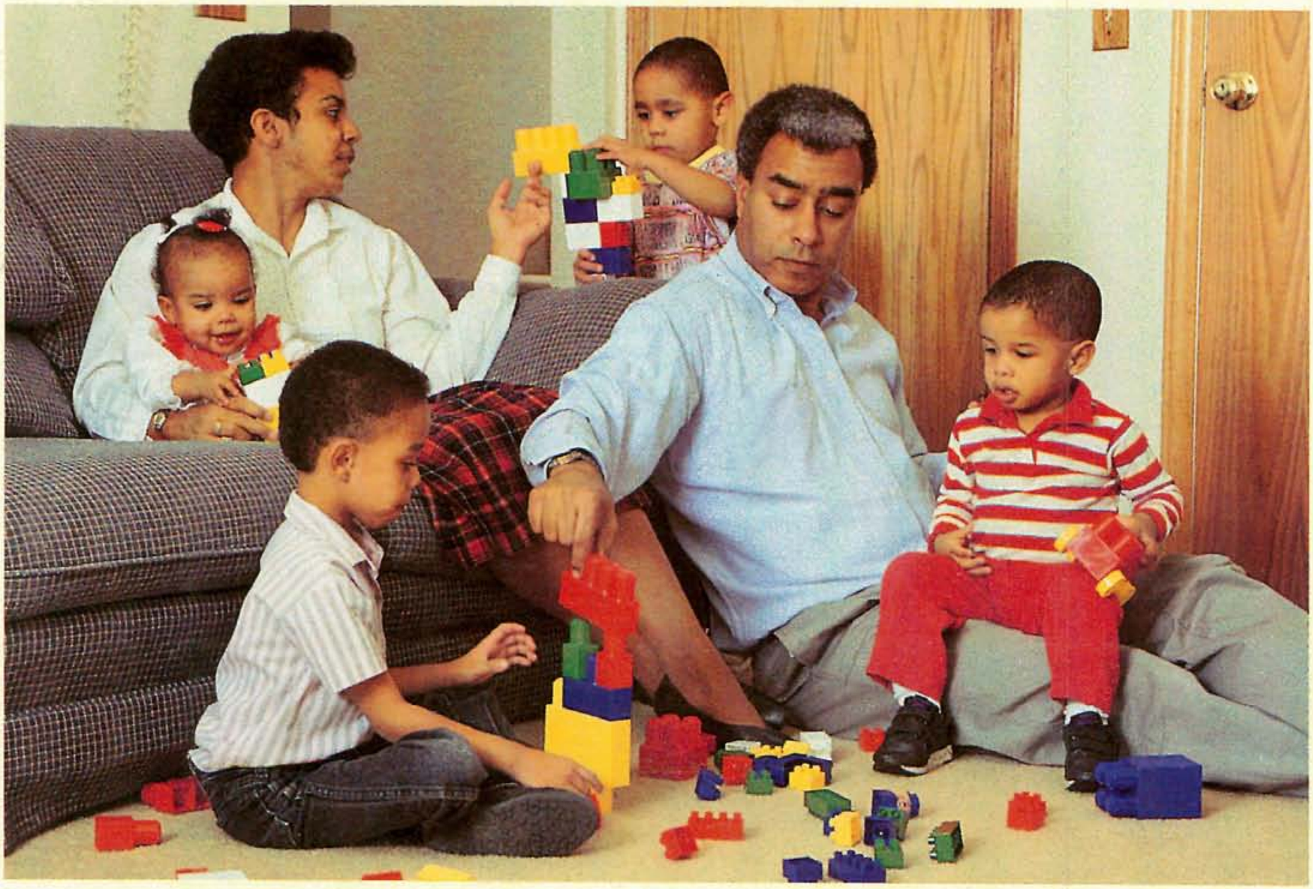
3. 여러분 마음에 꼭 드는 옷을 발견했지만 왠지 얌전해 보이지가 않는다.

4. 감독에게 말을 해야 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일을 여러분이 했다. 그러나 만일 말을 하면 감독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두렵다.

5. 자신이 성찬을 취하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지만, 만일 이를 취하지 않았을 때 남들이 알아차릴까 두렵다.

해답: 각 상황에 대한 정답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함으로써 찾을 수가 있다. "만일 구세주께서 여기에 계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림: 렘브란트, *갈릴리해의 폭풍우*



결과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들이 육신을 입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 버리는 인구 제한이 사회적으로 용납되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하신다.
"경전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은 그처럼 쉽게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2쪽에 나와 있는 "주님을 섬기고 사탄을 물리침"을 참조한다.

사진 : 크레이그 다이먼드(위), 웰든 앤더슨(아래)